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탐색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이 유 정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탐색

지도교수 이 옥 선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이 유 정

이유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최 의 창 (인)

부위원장 권 순 용 (인)

위 원 이 옥 선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및 수업 내실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는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실행 전문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21년 7월 ~ 2022년 11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교육과정 관련 경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 12명을 선정하였다. 질적 자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사전 질문지와 심층 면담, 현지 문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Wolcott(1994)가 제시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이해, 계획, 실행의 단계에 따라 체육과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9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이해 단계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알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며,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주변(동료 교사, 학생 등)과 소통하고, 교육과정의 재료(성취기준, 영역 등)를 활용하며, 나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하고, 좋은 체육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전문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둘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관계, 환경, 교과라는 네 가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적 차원에는 교과서 집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관련 연수 참여 등 교육과정 관련 경험 요인과 진선미 스포츠인 양성, 학생 중심 수업 등 교사의 체육수업 철학 요인이 포함되었다. 관계적 차원에는 동료 교사와의 긍정적·부정적 관계 요인과 교과내·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요인이 포함되었다. 환경적 차원은 체육시설, 수업용 교구, 체육수업 시수와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과 학생들의 성향,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이 포함되었다. 교과적 요인은 교육과정 개정의 파급력, 현장의 목소리 반영 등의 체육과 교육과정 요인과 교육과정 실행 당위성과 평생 체육의 디딤돌 역할과 같은 요인이 포함되었다.

셋째,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실행의 특징에 따라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은 ‘교육과정 신뢰형’, ‘교육과정 취택형’, ‘교육과정 냉담형’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육과정이 수업의 공통된 합의점이자 미래의 초석으로서 수업의 바이블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 유형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체육과 영역 및 성취기준을 준수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과정 취택형’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수업의 큰 틀이지만,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 유형의 교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 하여 활용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교육과정 냉담형’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유명무실의 것이자 현장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유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로 활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논의로는 첫째,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실행, 개발, 그리고 반성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실행 영향요인에 따르면, 교육과정 실행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환경, 학습자, 교과 및 교육과정까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Snyder & Zumwalt(1992)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실행 관점과 본 연구에서 발견한 교육과정 실행 유형을 비교 및 분석하고, ‘교육과정 냉담형’은 교육과정 생성 관점이 지닌 양면성 중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및 수업 내실화를 위해 전문성 함양을 위해 예비교사교육 단계와 현직교사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현장과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교육적 목표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충실 관점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을 다각화하여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실행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초·중학교 급과 비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교육과정 재구성, 고등학교 체육,
체육과 교육과정

학 번 : 2020-2988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3. 연구문제	6
4. 용어의 정의	6
5.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8
1. 교육과정의 수준과 실행	8
가. 교육과정의 수준	9
1) 개발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분	9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11
나) 지역수준 교육과정	12
다) 학교수준 교육과정	13
라) 교사수준 교육과정	14
2) 구현 형태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분	15
가) 이념적 수준의 교육과정	16
나)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	16
다)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	17

나. 교육과정의 실행	17
1) 교육과정 실행의 개념과 관점	18
가) 충실도 관점	19
나) 상호작용 관점	19
다) 생성 관점	19
2)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	20
2. 교육과정 전문성	21
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21
1)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	21
2) 교육과정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23
가) 교육과정 문해력	24
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25
나.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26
1)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변화	26
2)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 관련 연구	27
3. 고등학교 체육과 체육 교육과정	29
가. 고등학교 체육	29
1) 고등학교 체육의 역할	29
2) 고등학교 체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	30
나.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변화	32
1) 제1 - 4차 체육과 교육과정(1955-1987)	32
2) 제5 - 6차 체육과 교육과정(1987-1997)	33
3)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2007)	33
4) 2007 개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	34
5) 2022 개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	35
다.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35

Ⅲ. 연구 방법	37
1. 연구 설계 및 절차	37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37
나. 연구 절차	38
2. 연구참여자	40
3. 자료 수집	41
가. 사전 설문지	41
나. 심층 면담	41
다. 현지 문서	43
4. 자료 분석 및 해석	43
가. 자료의 기술	44
나. 자료의 분석	44
다. 자료의 해석	44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45
가. 연구의 진실성	45
1) 삼각검증법	45
2) 구성원 간 검토	45
3) 동료 간 협의	46
나. 연구의 윤리	46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7
1.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전문성	47
가. 이해 단계: “교육과정 꿰뚫어 보기”	48
1) 교육과정 내용 알기	49
가) 교육과정 배경 지식	49
나) 교육과정 내용 지식	51
다) 다양한 교육과정 문서 활용	54
2) 교사의 역할 이해하기	57
가)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	57
나)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59
다)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	61
3) 교육과정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63
가) 왜 교육과정을 잘 쓰지 않는가?	65
나) 왜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가?	66
나. 계획 단계: “교육과정 디자인하기”	69
1) 주변과 소통하기	69
가) 학생과의 소통	69
나) 동료교사와의 소통	73
2) 교육과정 재료 활용하기	74
가) ‘핵심역량’과 ‘체육과의 역량’ 활용	74
나) ‘영역’와 ‘성취기준’ 활용	76
3) 나만의 교육과정 개발하기	77
가) 창의적 수업 내용 계획	77
나) 환경을 고려한 수업	80

다. 실행 단계: “교육과정 생성하기”	82
1) 교육과정과 수업 연결하기	83
가) 나만의 교과서 제작	83
나)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활기록부 작성	85
다) 교육과정 실천의 다짐	87
2) 좋은 체육수업 실천하기	88
가) 최고의 학습 환경 제공	88
나) 유연한 수업 진행	90
다) 디지털 기기 활용	92
라) 교과 외 활동과의 연계	94
3) 수업 되돌아보기	95
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업 평가하기	95
나) 반성적 수업하기	97
2.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영향요인	100
가. 개인적 요인	100
1) 교육과정 관련 경험	100
가) 교육과정 개발	101
나) 교과서 집필	103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련 연수	105
2) 교사의 체육수업 철학	107
가) 평생체육과의 연계	108
나) 진선미 스포츠인 양성	110
다) 학생 중심 수업	112
나. 관계적 요인	114
1) 동료 교사와의 관계	114
가) 긍정적 관계: “서로 발전적이죠”	114
나) 부정적 관계: “내부의 적”	116

2)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118
가)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	118
나)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	120
다. 환경적 요인	122
1) 물리적 환경	123
가) 체육 시설 확보의 문제	123
나) 축구공 세 개보다는 열 개	125
다) 고등학교 체육 교과의 부족한 시수	126
2) 사회적 환경	128
가) 학생들의 성향	128
나) 학교 규모: 전교생이 다섯 명	130
다) 코로나-19: 위기이자 기회	131
라. 교과적 요인	133
1) 체육과 교육과정	134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134
나) 현장의 목소리 반영	135
2) 고등학교 체육의 흑과 백	136
가) 흑: 교육과정 실행 당위성의 모호함	136
나) 백: 평생 체육의 디딤돌	137
3.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	138
가. 교육과정 신뢰형	138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수업의 바이블”	139
가) 수업의 공통된 합의점	139
나) 미래의 초석	141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142
가) 교과서 기반 수업	143
나) 영역과 성취기준 준수	145

나. 교육과정 취택형	146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중요한 것만, 쪽쪽”	146
가) 수업의 큰 틀	147
나)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	148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149
가)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	149
나) 현실과 교육과정의 타협	151
다. 교육과정 냉담형	153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	153
가) 유명무실	153
나) 현장과 별개의 것	155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156
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156
나)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	158
4. 종합 결과	159
5. 종합 논의	161
가.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에 관한 논의	161
나. 교육과정 실행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163
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 관한 논의	165
V. 결론 및 제언	168
1. 결론	168
2. 제언	170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170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72
참고문헌	173

표 목 차

[표 1] 연구의 절차	39
[표 2] 연구 참여 교사 정보	40
[표 3] 사전 설문지의 주요 질문 내용	42
[표 4]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42
[표 5] 전문가 그룹 정보	46

그 립 목 차

[그림 1]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	48
[그림 2] 유인성 교사의 워크북	85
[그림 3] 전배려 교사의 수업일기	9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 교육은 기초적인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자,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의 시작 단계이며, 또한 사회에 나아갈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이다(교육부, 2015a). 고등학교 체육교육은 신체활동의 가치에 대한 기초 교육의 단계인 초등체육을 지나, 그리고 초등체육보다 신체활동 가치의 범위와 영역이 심화된 중등체육에 해당하는 단계이다(윤주석 외, 2019).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교육은 전인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토대로 다양한 신체활동 가치를 익힘으로써 학습자가 사회 진출 이후에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손천택 외, 2011).

고등학교 체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체육에 대한 문제점도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었다(나봉순, 김태홍, 2000; 유창완, 2018; 윤주석 외, 2019; 이대중 외, 2020; 정현우, 2017; 조미혜 외, 2001). 나봉순, 김태홍(2000)과 조미혜(2001)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비 입시 교과목인 체육은 소외되고 있고,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을 줄이고자 하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창완(2018)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이 다른 학교급에 비교해 가장 수업시수가 적고 위축되어 있음을, 이대중 외(2020)는 입시라는 명목하에 학교 구성원들의 편견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정현우(2017)와 윤주석 외(2019), 그리고 이대중 외(2020)는 고등학교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쉬는 시간이나 자율 학습으로 대체되는 시간으로 여겨지거나, 아나공과 같은 부정적인 수업의 형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고등학교에

서 소외되고 있는 체육 시간의 현상을 비추는 연구들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고등학교에서 체육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입시, 수능과 내신성적, 그리고 국·영·수와 같은 주지 교과는 수업과 평가, 행사 활동까지 고등학생들의 관심과 고등학교의 중심이 된다. 그에 반해 체육은 학생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일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당연하게 자습을 기대하는 시간, 성적이 중요하지 않으니 수행평가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도 문제없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내신과 수능, 대학입시가 매우 중요시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고등학교 체육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고등학교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 체육수업의 10단위 6학기(매 학기) 운영, 학교스포츠클럽과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고등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연구들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 체육과 선택과목 편성과 관련한 교사의 인식 조사, 학교 분위기 변화와 예산과 체육 전문 실무사 등 지원의 확대,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수업 전문성 탐색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김용덕, 임현주, 2013; 유창완, 2018; 이대중 외, 2020; 홍진우, 2021). 고등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의 중심에 ‘체육수업’이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근본이자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을 연구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좋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은 무엇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수준에 맞게 상황 맥락적으로 재구성한 수업을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강조한다. 제성준, 윤현수(2015)와

장경환(2017)은 가르침에 대한 어려움은 곧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는가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곧 교육에 대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경자(2003)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곧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라 하였다. 즉, 좋은 체육수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등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사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원정, 2010; 김진필 외, 2012; 류태호 외, 2009; 전용진 외, 2011 등). 하지만 중등 체육 교육과정과 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연구보다는 중등 교육과정 내 중학교 교육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고 있으며, 선택과목과 고등학교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진필 외, 2012; 류태호, 이규일, 2009; 제성준, 윤현수, 2015).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체육교사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유창완(2018)의 연구, 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체육교사를 관찰한 정현철(2018)의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수업과 교육과정에 관련한 연구들(박대권, 남석희, 2012; 신기철, 2007; 조호제, 남궁정, 2008)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교하여 고등학교 체육수업,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에 관련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체육교사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하였다.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은 체육교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은 국가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에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교사의 역

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 이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며 교사에게 능동과 창의성, 전문성을 통해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추갑식, 2014). 이때의 교사수준 교육과정이란 이념적 수준, 문서적 수준에 있는 교육과정을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교사 개인이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학생과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낸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체육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의 역할을 통해 국가 체육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교육적 필요성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맞춤형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다(유정애, 2010).

교육과정의 전달자가 아닌 개발자로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은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과서와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추갑식(2014)은 교사는 교육과정의 디자이너로서 교사가 능동과 창의를 통해 자신만의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일반교육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곽영순, 2015; 김경자, 2003; 박민정, 성열관, 2011; 박순경; 2003; 서명석, 2012; 이근호 외, 2012). 교육과정 전문성이란 교사가 교육과정의 배경과 방향,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학생과 주변 상황에 대한 지식을 모두 종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김평국, 2005; 백남진, 2013; 서명석, 2011; 정광순, 2012).

체육교사에게도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요구되는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송지현, 최원석, 2018; 유정애, 2010; 장경환, 2017; 전용진, 이규일, 2011). 하지만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관련한 연구는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 그 자체를 조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용환, 2011; 김진필 외, 2012; 신기철, 2007; 조호제, 남궁

정, 2008). 선행연구들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종합적인 과정이 아닌,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에서 실행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을 폭넓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교육과정 실행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나봉순, 김태홍, 2000; 유창완, 2018).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학생은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는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수요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까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라는 고등학교 교육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 고등학교 체육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연구하는 것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과 교사수준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체육수업과 체육의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고등학교 체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대입 중심의 문화로 소외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의 가장 중심이 될 체육수업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고등학교 체육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탐색하였다. 우선,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과 실행 전문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실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실행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및 고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연구문제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실행 전문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교사수준 교육과정

교육과정 분권화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결정권이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사수준으로 점차 이양되며 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교사수준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 발달단계의 성취 능력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첨가하는 일을 의미하며, 교사의 실행과 가장 관련이 깊다(한혜정, 조덕주, 2012).

▣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교육과정 실행이란 문서상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을 단순히 수업으로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과 학급, 그리고 학교의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Marsh & Willis, 2003).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는 체육수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이란 문서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업상황 및 교육과정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계획하며, 수업을 되돌아보고 체육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범위를 일반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체육중점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의 사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를 종합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지역에 따른 임용과 교사의 차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행 과정 및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수행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1절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실행에 대한 개념과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제시한다. 제2절에서는 교육과정 전문성의 개념과 배경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전문성이 체육교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고찰해본다. 제3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의 역할과 현주소를 짚어보고,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관련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과 체육 교육과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교육과정의 수준과 실행

교육과정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계획을 진술해 놓은 문서를 교육과정이라고 하며,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교육학의 한 학문 분야를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만드는 수업 그 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은 철학의 수준에서부터 교실 수업의 수준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과 가장 가까운 교사수준에서 개발하는 교육과정, 교사가 실행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두정, 김소정, 2017; 이윤미, 2020 등; 전현정, 강현석, 2011).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 밖에서 개발돼

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베일에 가려 있었던 교사가 가르친 교육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둔 연구이자, 이 둘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함으로써 현장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유성열, 정광순, 2020). 이번 절에서는 교육과정의 수준과 실행의 개념을 이해하고 연구의 주제인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의 수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사회적 필요와 변화에 적합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1980년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며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1항에서는 우선 개발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후 실행 형태에 따라 이념적, 문서적, 실천적 수준으로 구분한 교육과정의 개념을 알아봄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과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의 개념적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1) 개발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5차 교육과정까지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국가 교육과정이 배부된 후에 지역, 학교, 교사는 각 단계에서의 특수성과 학생의 개별성을 담아내기보다는 내려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현’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수준에 따라 각 지역, 학교,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분류는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 사항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결정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게 되며 국가의 매우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수준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등 더욱 구체적인 수준에서 변형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6차 교육과정 이후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유정애, 2005). 제6차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개정의 중점이자 구성방침의 한 가지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구성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체제가 국가수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을 지역 교육청에서 구체화하고, 학교수준에서 그것을 다시 창의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와 각급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운영하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의도하게 된 것이다(박채형, 2003).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의 분권화라는 취지 속에서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사수준 교육과정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지역, 학교, 그리고 교사 각 주체의 재량권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으로써 6차 교육과정에 이어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한층 확대해 놓고 있다. 이것은 중앙(국가)에서 입안하고 연구·개발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역, 학교, 교사, 학생이라는 다양한 수준,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정 의사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처임을 의미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은 유지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도 교육과정의 수준을 크게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세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저마다의 교육철학, 가치관, 신념 등을 바탕으로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a).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서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교육부, 2015b).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운영, 교육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본 및 기본 지침이 되며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의 수단인 동시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한혜정, 조덕주, 2012).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이 지방분권적인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이 지역과 학교에 대폭 이양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 또한 중앙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김재복(1997)은 교육과정의 결정과 운영에서 국가가 하는 일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1단계, 교육부가 학교 교육의 방향,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교과의 학습지도와 평가의 방향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제정 고시한다. 제2단계, 고시한 교육과정 내용을 자료화하여 교사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한다. 제3단계, 각종 교재의 제작과 공급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방침의 수립, 교원 양성과 교육과정의 질 관리 등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에 교육부 또는 국가 수준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개별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준이자 기준점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사회 시대의 변화와 정권의 변화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고시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소경희, 2013; 임유나, 홍후조, 2016; 조미혜 외, 1997 등)

1990년대 국가 교육과정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해 더욱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들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께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강충열, 박승렬, 2000; 김경자, 1994; 정미라, 1998 등).

나) 지역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 시·도 교육 연구원, 시·군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을 재구성 및 편성하고, 장학 지도와 지원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일컫는다(김재복, 1998). 6, 7차 교육과정에 걸친 교육과정 분권화의 주된 경향은 시·도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으로 대표한다.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고려하지 못한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전달체계 상의 공백을 줄이며, 국가와 지방, 학교로 이어지는 계통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함수곤, 1994; 김민희, 2015에서 재인용).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개발 체제 내에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결정권이 지역의 수준으로 이양됨으로써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효율적으로 전달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b)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결정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에서는 선택과목과 새로운 과목의 개설과 직업 관련 과정의 운영을 시·도 교육청의 결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은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다.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교의 교과목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침과 절차 안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내실 있는 연계를 위한 ‘지역 자원 목록’제공,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연수, 컨설팅, 지원의 계획 수립과 시행 등이다. 이같이 지역 교육과정은 각 시·도(본청)나 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제시하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나 실천중심 장학자료의 형태로 구체화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체계적 관리 과정이 요구된다(김민희, 2015).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산을 결정한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지방자치 교

육과 지역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민희, 2015; 박창언, 2013; 박채형, 2003). 김민희(2015)는 교육과정 운영체제 중 지역 교육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창언(2013)은 분권과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도하게 설정된 국가 권한의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채형(2003)은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교육과정 지역화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이 재구성됨으로써 교과교육이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 학교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각 학교에서 개발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개발 범위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지역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수정과 개발이 가능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모두 담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이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학교의 상황과 그렇지 못한 학교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 실행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학교수준 교육과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한혜정, 조덕주, 2012).

교육부(2015b)의 국가수준 총론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라.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파.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외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 주체의 다양성과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자체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틀을 넘어 학생의 관심과 요구, 경험과 수준에 맞추어 변용해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된다. 구체적인 예시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통합된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것 또한 학교수준에서 가능한 사항이다. 홍후조(2002)는 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에 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선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색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강영혜(2009)는 단위학교의 교육적 리더십과 자율적 학교 경영에 관련한 연구를, 정광희(2016)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수요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기반형 맞춤 교육과정 운영 방안’, ‘지역연계형 맞춤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욱 나아가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더불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유연해지고 다양화될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1).

라) 교사수준 교육과정

교사수준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 발달단계의 성취 능력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첨가하는 일을 의미하며,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과 가장 관련이 깊다. 학생을 고려하며 주간 계획안이나 일일 과정안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이점이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실천적·개인적 지식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한혜정, 조덕주, 2012). 에듀쿠스(2018)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준과 지침으로 삼으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요구 및 교육환경 등을 반영함으로써 단위 학급(학년)별로 편성·운영하는 실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인 교실에서 저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교사는 학생의 상황과 수업의 환경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과 방법, 자료 등을 재구성하고 조직함으로써 저마다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6차 교육과정 이전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 교사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기대받았다. 하지만 6차 교육과정 이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며 ‘충실한 실행’에 불과하던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부터 능동과 창의성을 통해 ‘디자인된’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교육적 요구가 변화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교사는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그들의 직무에 능동과 창의를 발휘하며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추갑식, 2014).

2) 구현 형태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분

체육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념적, 문서적, 실천적 수준으로 논의된다(최의창, 2003). 이념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문서적 수준,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없으나, 교육과정의 가장 근본이 된다.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념과 철학이 문서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사가 실행에 옮겨 실제 수업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 이념적 수준의 교육과정

인간의 사고와 이념은 의도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체육교육 활동 또한 체육과 관련된 사고와 이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의창, 2003). 이념적 수준에서의 체육 교육과정은 사고와 이념으로서의 체육 교육과정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념적 수준에서의 체육 교육과정은 체육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체육교육의 철학이나 근본 생각을 의미하며, ‘체육은 학교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가’, ‘체육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가’, ‘체육은 학교에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이념적 수준의 체육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문서적,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이 됨으로써 교육의 방향성을 드러낸다(조미혜, 오수학, 2004).

이념적 수준에서의 체육 교육과정은 체육교육에 대한 관점(가치 정향, value orientation)이 내재되어 있으며, ‘체육 교육과정 사조’라고도 표현한다. 체육 교육과정 사조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일괄적인 주장이며, 일반 교육 철학 분야에서 말하는 본질주의, 향존주의, 실용주의, 낭만주의 등과 같은 철학적 수준에서의 논의를 체육 교육과정에서 논의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체육교육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널리 인정받아온 대표적인 체육 교육과정 사조들은 내용숙달중심 사조, 자아실현중심 사조, 사회개혁중심 사조, 학습과정중심, 생태통합중심 사조의 5개 사조가 있다(최의창, 2003).

나)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로서의 체육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이 배워야 할 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명시화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 체육 교육과정 해설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체육 교과서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체육 지도서 또한 체육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을 문서

라는 그릇에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서적 수준의 체육 교육과정은 지역에서는 국가수준 체육 교육과정을 토대로 시·도 교육청이 학교를 위해 마련한 고시문으로, 학교에서는 국가와 지역수준 체육 교육과정을 토대로 일련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학교 운영 계획’으로 제시된다(조미혜, 오수학, 2004).

다)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

실천적 수준의 체육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경험의 총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 내려진다(최의창, 2003).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체육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의미하며, 교실에서 실제로 수업할 경우 공식적인 문서와는 다르게 수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체육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것, 체육교사에 의해 해석되고 실행되는 교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자체가 실천적 수준의 체육 교육과정을 의미한다(조미혜, 오수학, 2004).

실천으로서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가장 전반에서 교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육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문서적 교육과정보다 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서화 된 체육 교육과정에는 중학교에 표현 활동 영역이 있기에 학교에서 ‘창작 표현’영역을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교사이기 때문에’, ‘표현 활동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무용실이 없어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수업에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문서에 제시된 교육과정과 실천이 다르게 전개되는 한 가지의 예가 될 수 있다(조미혜, 오수학, 2004).

나. 교육과정의 실행

교육과정 실행(enactment, practice, implementation)에 대한 연구는 앞서 1항에서 살펴본 교사수준 교육과정이자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의 개념적 배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항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의 개념과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에게는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일반 교육학과 함께 체육 교육과정의 분야도 선행연구와 함께 논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 실행의 개념과 관점

‘교사는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또는 ‘교육과정을 가르친다.’와 같은 표현에 더 익숙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다(유성열, 정광순, 2021). 아무리 훌륭한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교육의 이상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와 교사에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단지 사용하고 가르치는 수준이 아닌, 교사가 학생에 맞춤이 될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잘 계획된 교육과정을 교사가 실행에 옮기고, 또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학생에게 스며들으로써 의미가 있다(장경환, 2017).

유성열, 정광순(2021)은 이러한 변화가 생긴 배경으로 북미에서 1960년대에 시작된 교육과정 실행(curriculum implementation) 분야의 연구들이 국내에 소개된 것과 최근 들어 교육과정 재구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영향이라고 말하였다.

Fullan(2007)은 교육과정의 실행을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실제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Fullan(1982)은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실의 상황과 맥락,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교사의 신념과 가치 등으로 제시하였다. 김종훈(2017)은 교육과정 실행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학교와 교실에서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과정의 양상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였다.

Snyder & Zumwalt(1992)의 교육과정 실행 연구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관점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교육과정 실행을 충실도 관점(fidelity perspective), 상호작용 관점(mutual adaptation perspective), 생성 관점(enactment perspective)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때, 세 가지 교육과정 실행 관점은

충실과 생성 관점을 양 끝으로 하는 연속선 상 수많은 상호작용 관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유성열, 정광순, 2021).

가) 충실도 관점

충실도 관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충실도 관점은 기술공학적 신념을 지닌 관점이며, 효율성을 추구하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예측되어야 하고 예측된 대로 실행되는 것을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계획’과 ‘의도’로서의 교육과정 또는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보며, 교사는 교육과정의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이 된다(백남진, 2013).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성격이 매우 짙고,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5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호작용 관점

상호작용 관점은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양한 교육 환경과 맥락, 교사의 지식과 경험, 가치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이경진, 김경자(2005)는 상호작용 관점을 교육과정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의 쌍방향로라고 표현하는데, 교육과정 개발자들에 의해 계획된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실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고 조정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다) 생성 관점

생성 관점은 앞선 두 가지의 관점과 달리 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자료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교수 전략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교사들에게 계획의 자료로 사용될 뿐이며,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enactment)는 것이다. 즉, 생성적 관점은 교육과정이 어떠한 결과물이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자 변화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개인적 발달 과정이라고 보며,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육과정 지식을 꾸준히 만들어어나가는 역할이 요구된다(이경진, 김경자, 2005).

2)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

교육과정의 실행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는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그 세 관점 모두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 수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장경환, 2017). 계획된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하든, 계획된 교육과정을 학생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실행하든, 학생과 함께 교실에서 계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어나가든 교육과정의 주체는 교사가 된다. 교육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연구들은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의 중심이며 교육적 주체이기에 실행의 성패는 교사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도,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실행의 충실도 관점에 가까웠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분권화와 자율화의 움직임은 교육과정 실행의 상호작용과 생성 관점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로서 계획된 교육과정을 실행에 ‘그대로 옮기는’ 역할로부터, 교육과정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점차 자율화(自律化), 대강화(大康化)¹⁾됨으로써 점차 교육과정의 결정권은 지역,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 위임되고 있으며,

1) 강현석 외(2006)는 교육과정 대강화란 “국가수준에서 지역이나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전체적인 개요나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진술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각 지역과 학교, 학생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교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강충열, 박승렬, 2000; 유정애, 2010에서 재인용).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을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도록, 학교의 경영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에 서도록,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교육과정의 실행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요구, 해당 지역과 학교의 여건 등에 적절하게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후 학교에서는 국가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각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이들을 근거로 하여 교실에서 교사들이 교육상황과 학생들의 학습요구, 능력 등에 맞게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2. 교육과정 전문성

2절은 교사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요소가 될 교육과정 전문성의 개념은 무엇인지 관련 선행연구와 함께 논함으로써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1)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흐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과 교

사의 역할 모델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실행의 이분화 모델’에서 교사가 아닌 외부의 교육과정 전문가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의도에 맞게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Ornstein & Hunkins, 1998; 박윤경 외, 2017). 둘째,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드러나며 Connelly & Ben-Peretz(1997)는 ‘교육과정의 능동적 실행자(active implementor of curriculum)’, 또는 ‘교육과정 조정자(teacher-as mediators of curriculum)’로서 교사의 교육과정 역할 수행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자가 교사의 능동성을 염려하고 교육과정 실행 전략을 개발하며 교사는 여전히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에 제한된다. 셋째 ‘교육과정의 사용자-개발자(curriculum user-developer) 모델’에서 교사는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째, ‘교육과정의 개발자-사용자(curriculum developer-user)’모델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며, 스스로 고쳐나가는 존재이다(박윤경 외, 2017).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을 전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사의 능동적인 수업을 권장하기에, 교사가 어떠한 모델에 놓여 있음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분권화와 자율성의 특징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능동적인 교사수준 교육과정의 실행이 점차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재차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육과정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구성주의 교육이론이 성장한 것 또한 교육과정 전문성에 관련한 연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사의 인식론, 존재론, 교육과정 재구성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과정, 학습의 사회적 맥락, 상대적 인식론, 학생들이 처한

사회적 처지, 협력에 대한 학습의 중시 등의 변화는 기존의 일제식 수업과 비교하여 교사에게 더 많은 능력과 전문성을 증진 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박민정, 성열관, 2011).

이후에도 교육과정 전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김경자(2003)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자로서 교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왜 이것을(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르쳤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 답하기 위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전문성임을 강조하였다. 박순경(2003)은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활발한 의사소통 문화 조성 and 교육과정 연수 확대, 교육과정 편성 절차의 체계화도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서명석(2012)은 현대에는 피동적인 지식 정보의 전달자가 아닌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때,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란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필요와 학교의 설정에 맞추어 해석·번역하는 일, 교사가 자신의 교육과정으로 교재를 재형성하는 것 등 교사의 직무에 능동과 창의를 발휘하도록 요청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때에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근호 외(2012)와 광영순(2015)은 미래 사회와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과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임을 강조하였다.

2) 교육과정 전문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렇다면 교육과정 전문성이란 명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교육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바라본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능력이다. 반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바라본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전문성은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교육과정 전문성의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교육과정의 문해, 재구성 등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의 요소들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으로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문해력(curriculum literacy)’과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교육과정 전문성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연구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 문해력

박윤경 외(2017)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문해력은 좁은 의미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을 읽는 능력’으로, 확장된 의미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읽고 해석, 이해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교과 내용 등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수업 설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백남진, 2013; 정광순, 2012). 과거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교육과정 문해력은 ‘읽는’ 능력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상호작용하고, 생성함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교육과정 문해력은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포함한다. 확장된 교육과정 문해력 개념을 적용했을 때, 유성열, 정광순(2020)은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학생의 흥미, 수준,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수업에서 실제로 할 ‘경험’을 선정하는 활동이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으로부터 수업에서 가르칠 ‘내

용'을 정하는 활동이다. 셋째, 학생, 환경, 교사를 고려하여 '목표'를 진술하는 행위이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교육과정 재구성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전제로,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교육 활동을 교실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계획과 교과서를 재조직화, 보완, 대체, 조정, 통합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김평국, 2005; 서명석, 2011).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6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다. 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 개념이 도입되었고, 단위학교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역, 학생, 교사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진 것이다.

김평국(2005)은 중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며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유형을 6가지(전개 순서의 변경, 내용 생략, 내용 추가, 내용 축약, 내용 대체, 타 교과와의 통합)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과 내용에 한정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교사에게 미시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교사는 교육과정과 상호작용하고, 생성함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는 교육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주변의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강현석, 방기용, 2012). 현대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이란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개별 학생의 학습경험이 특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다양화하는 것, 가르치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맥락에 맞추어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것 등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능력일 것이다.

나.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1) 체육과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변화

앞서 1항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자율화를 통해 학교수준, 교사수준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영역은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개발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체육과의 목표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학교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수업에 적합한 성취기준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과의 내용을 학년별 필수와 선택 내용이 제시하고 있기에 교사는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철학은 내용 영역에서 교사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였다.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른 교과와 달리 학년, 학기별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순서가 규정되지 않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에 체육교사에게 교육 내용 선정이 일임되고 있다. 체육과의 교수·학습의 방향과 평가는 학습 환경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과 변용,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상세히 개발된 틀을 제시하지 않고, 교사의 자율성의 범위를 넓혀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속에서 체육교사의 역할 변화를 주장하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유정애(2005)는 ‘교육과정 실천자’에 국한된 체

육교사의 역할로부터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해하여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의 역할로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유정애(2010)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체육과 교육과정 전문성’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탐구하였다. 장경환(2017)은 초등체육 현장에서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실천적인 수준에서 구현하는 연결자’이자, ‘교육과정 실행 주체’이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개발자’가 됨으로써 훌륭한 ‘체육수업’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와 교육과정의 현실이 부정적임을 밝히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김기철과 유창완(2012)은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종목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현실을, 유창완(2018)은 여전히 문서적 교육과정과 실천적 교육과정의 괴리가 큰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송지현 외(2018)는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 체육 시설과 장비의 부족 등의 배경으로 인해 교사와 교육과정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10년 이상 경력의 체육교사들은 교육과정 개발자보다는 경험의 축적을 통한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교사가 되는 현실을 재조명하였다.

2)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 관련 연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주어지는 교육과정’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두 가지로 보았다면,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 관련 진행되었던 연구도 두 개의 패러다임의 틀 속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천은 곧 교육과정 문서에 충실한 실천이라는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충실도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교육과정을 문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의 초점은 교육과정 실천이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된 종목의 실천이나 권고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에 두고 있다(강신복, 이충원, 2001; 권병선, 1999; 김민수, 김승재,

2003; 문호준, 2005).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체육 교사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실천가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다시 세 개 범주의 연구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이다. 유정애(2010)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탐색하고, 체육교사 연구가 ‘수업 전문성’에서 ‘교육과정 전문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체육교사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전용진과 이규일(2011)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면모를 지닌 한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 단계와 성장의 경험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생애사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진필 외(2012)는 중등 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과 실천 경험을 분석하여 ‘체육수업의 길라잡이로서 교육과정’, ‘해석과 선택의 번뇌를 통한 교육과정 실행의 이해 증대’,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발견’과 같은 의미를 발견하였다. 정현철(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이해와 수업 설계, 실행 과정을 관찰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관련한 연구이다. 김원정(2010)은 중등 체육교사들이 체육 교육과정의 개발자이자 구성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실천적 딜레마를 밝혔다. 제성준과 윤현수(2015)는 초임 체육교사가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밝히고, 자아 성찰과 상호교섭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수준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천자가 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송지현과 최원석(2018)은 중등 체육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무관한 체육수업’, ‘주객이 전도된 체육과 교육과정’이라는 배경들로 인해 경력이 쌓이며 교육과정 개발자보다 오히려 노하우에 의존한 수업을 하는 교사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3. 고등학교 체육과 체육 교육과정

3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의 역할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연구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고등학교 체육

1) 고등학교 체육의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제시된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기초적인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자, 전문적인 교육의 시작 단계에 동시에 놓여 있으며, 사회에 나아갈 학생들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단계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기초교육 위에 실시하는 교육이자, 중등교육이며(중학교는 보통교육 중 전기 중등교육단계이며, 고등학교는 보통교육 중 후기 중등교육단계라 볼 수 있다),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행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초등학교 체육은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기초교육의 단계이며,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기초교육의 단계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가치의 범위와 영역이 심화되는 가치교육의 심화 교육의 단계이다. 국가 수준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체육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서 학습자가 사회 진출 이후에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윤주석 외, 2019). 교육부(2015b)는 고등학교 체육 과목이 체육활동의 생

활화를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였다. 손천택 외(2011)는 고등학교 시기가 학생들에게 다가올 성인기에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고등학교 체육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에게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길러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전인으로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은 초·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다(유창완, 2018; 이대중 외, 2020). 이에 따라 고등학교 체육이 ‘입시’가 중심이 되는 학교 속에서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는지 고등학교 체육의 ‘현주소’를 이어나 논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체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체육은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을 함께 하지만, 고등학교 체육수업만의 독특한 특징들로 인해 중학교 체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홍진우(2021)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가리킨다. 첫째는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의 운영이 학교의 운영상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 과목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업에서의 평가가 상급학교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체육을 중요하지 않은 교과, 그리고 ‘교육과정에 무관심’한 수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체육이 내실화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는 2000년대에도 살펴볼 수 있다. 나봉순, 김태홍(2000)은 체육교육 시간과 시설의 부족, 체육교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수업, 학교체육에서의 편협한 엘리트 선수 육성 제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등학교 체육의 발전 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김석희, 유영규(2008)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 체육교사, 체육시설,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지 교과의 대신이 되거나, 체육수업 방법의 부적절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밝히고, 체육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도 고등학교 체육수업이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유창완(2018)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체육은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주당 체육수업 시수가 가장 적고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조명하였다. 윤주석 외(2019)는 고3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본 체육수업에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회피하고 싶은 과목’, ‘수업에 관한 학생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과목’, ‘되풀이되는 과정을 통해 지겨운 종목의 반복’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였다. 이대중 외(2020)는 고등학교 체육이 오랫동안 대학입시라는 명목하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학교 구성원 간 의견 차이는 학생들이 학교 정규 체육 시간 외 틈새 시간, 방과 후 시간에 체육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고등학교 체육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체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육과정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선택중심 교육과정 내에서도 3학년 동안 10단위 이상의 수업을 듣고 매 학기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김용덕과 임현주(2013)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짐으로써 체육수업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음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유창완(2018)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체육과 선택과목에 대한 체육교사들의 인식과 학교에서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체육과 선택과목의 개설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대중 외(2020)는 고등학교에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체육활동이 권장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 스포츠 대회 개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상 등과 같은 체육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체육교사를 위한 연수, 체육 전담 행정 실무자, 보장성 체육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홍진우(2021)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같은 협력적 활동, 현직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전문성’, ‘진로진학 전문성’, ‘삶 연계 전문성’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나.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변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9번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탐색하는 목적을 지니고 체육 교육과정의 실천적 수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항에서는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의 변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되,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에게 주어진 ‘주체성’의 비중을 따라 교육과정을 5개의 시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 - 4차 체육과 교육과정(1955-1987)

제1-4차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편성 단위와 지도 내용이 달리 개정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다. 제1 - 4차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당시 국가수준에서 제시된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기준점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옥선(2013)은 당시의 교육과정 시기를 ‘수동적·일률적 실행의 시기’라고 표현한다. 먼저 1, 2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체력 향상과 정식 사범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체육교사로 인해 ‘단순과 무지의 시대’로 표현되었다. 또한, 3, 4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강건한 국민 육성을 위한 체력강화라는 강력한 정부 지침, 전문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교사의 운동부 업무 과중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수난과 왜곡의 시대’로 여겨졌다(강신복, 2009). 정리하자면, 제1 - 4차 교육과정은 운동기능 숙달이 가장 큰 가치이자,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을 실천에 옮기고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따라야 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이옥선, 2013).

2) 제5-6차 체육과 교육과정(1987-1997)

제1 - 4차 체육과 교육과정이 ‘수동적·일률적 실행의 시기’였다면, 제5 - 6차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 ‘과도기적 실천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제5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지도 내용의 측면에서 제1 - 4차 교육과정이 맨손체조, 위생, 스포츠, 무용과 같이 종목으로 영역을 제시 하였던 것과 달리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지도 내용에 대해서도 단위학교에 의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천적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옥선, 2013). 제6차 교육과정은 기존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도입되고, 교육과정 결정과 운영의 분권화 움직임,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유정애, 2010). 강신복(2009)은 제6차 교육과정 당시 외국의 스포츠 교육학 연구가 국내에 들어오며 학교체육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체육교사 교육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였기에 ‘자각과 변혁의 흐름’의 시기라 표현하였다. 제5 - 6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시기 학교 현장을 반영하여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무성이 주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과도기적 성격을 보였다(이옥선, 2013).

3)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1997-2007)

제7차 체육 교육과정 시기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공통 기본 교육과정(초, 중등학교)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고등학교)이 구분되었다.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동일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는 ‘필수 내용’과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요구와 특성에 따라 ‘선택 내용’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구성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강신복, 2009).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교사의 자율적

이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실천자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에서 정하는 모든 내용이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을 문서상으로 강조되었다(장경환, 2017). 이옥선(2013)은 제7차 교육과정 시기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기에 ‘자율적 실천’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4) 2007 개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운동기능 중심’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특히 내용 체계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영역을 단체 운동, 개인 운동, 야외 운동과 같이 제시하였다면, 2007 개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 5가지 가치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체육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는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이라는 세 개의 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신체활동 가치 중심’ 패러다임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창의·인성’을 강조한 총론에 따라 체육과 교육과정에도 신체활동을 통한 창의·인성의 함양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중점으로 개정된 총론에 맞추어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체육과의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에서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여가’ 영역 대신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안전’영역이 추가되었다는 변화가 있었다.

교육과정 실행의 측면에서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 교육과정까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자 의도하고 있다(장경환, 2017).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신체활동은 교육과정의 목적에 근거하여 선택

하되,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영역의 신체활동 예시나 새로운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내용별로 구분된 학습 영역은 학년별 수준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다”와 같이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5) 2022 개정 이후 체육과 교육과정

다가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특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1).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편입(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가 되며,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촉발 기제로서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수학습·평가의 개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같은 개선을 통해 고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고교체제의 개편을 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유창완, 2018).

고교학점제로 변화한다면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또한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제로,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과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교사는 지역, 학교,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고 수준별, 단계별 교로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목표, 내용, 방법과 평가까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다.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관련 연구

체육 교육과정에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원정, 2010; 김진필 외, 2012; 류태호, 이규일, 2009; 유정애, 2004; 장용규, 이정

택, 2016; 전용진, 이규일, 2011; 조미혜, 2012 등). 하지만 초등학교의 체육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중등 교육과정 내 중학교 교육과정에만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고등학교 체육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용환, 2011; 김진필 외, 2012; 류태호, 이규일, 2009; 장용규, 이정택, 2016; 제성준, 윤현수, 2015). 고등학교 체육은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중요히 여겨지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중학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에 맞춘 연구 또한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유창완(2018)이 진행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정현철(2018)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체육교사를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에 비교하여 연구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한 시기를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교육과정을 이해, 재구성하는 과정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함께 다룸으로써 계속해서 변화할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가. 연구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위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함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 방법과 달리, 연구자가 사전에 지니고 있던 지식이나 편견이 연구 과정 및 해석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Denzin 외, 2006). 따라서 절대불변의 지식을 밝혀내고자 진행되는 연구가 아닌, 국지적인 상황 속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내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연구이기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의미와 이해’, ‘일상적 세계의 기술’, ‘특정한 사례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발견과 이론화’, ‘새로운 통찰력의 제공’이라는 여섯 가지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로서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과정이라는 ‘일상적 세계’를 기술하고,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며, 교육과정 실행 유형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Creswell & Poth(2018)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내러티브(narrative), 현상학(phenomenology),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는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기술과 분석의 과정을 거쳐,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다양한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유형을 탐색하고,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및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사례연구는 연구 설계의 유형에 따라 ‘단일사례 설계(single-case design)’와 ‘다중사례 설계(multiple-case design)’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12명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도출된 교육과정 실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중사례 설계 유형을 선택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7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과 결과 정리 4단계로 구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단계는 [표 1]과 같다.

첫째, 이론적 탐구 단계 2021년 7월~10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 본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지닌 고민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체육, 그리고 관심 분야인 교육과정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주제를 설정한 뒤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주제의 큰 맥락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선행연구를 계속 고찰하였다.

둘째, 연구 설계 단계는 2021년 8월~2022년 1월에 진행하였다. 문헌 분석과 동료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으며, 유목적적 표집에 의해 연구주제에 적합하면서도 다양한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면담 질문을 개발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과 분석의 단계는 2022년 1월~7월에 진행하였다. 우선, 온라인 개방형 설문 자료와 12명의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심층 면담 자료, 현지 문서 등을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Wolcott(1994)이 제시한

체계적 분석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자료의 기술, 분석, 해석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넷째, 결과 정리의 단계는 2022년 7월 ~ 11월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결론을 짓기에 앞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본 뒤, 분석된 자료를 종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그림과 표 등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사이의 관계짓기를 통해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전문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1] 연구의 절차

연구일정 연구단계		2021						2022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주제 설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참여 자 선정																		
	질문 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2.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예를 담고 있는 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김영천, 2006). 또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자의 시간과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Miles & Hurbema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할 것이며,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12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 교사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주제인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는 교사 개인의 실천적·개인적 지식이 많이 개입되며,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전문성을 깊이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적·개인적 배경을 지닌 연구참여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교육과정 관련 경험 다양성을 고려하여 표집 되었다.

[표 2] 연구 참여 교사 정보

순	성명	성별	총 경력	고등학교 경력	교과서 집필 경험	학습공동체 참여	비고
1	임전문	남	13	13	0	0	
2	이성실	남	14	6	0	0	
3	임열정	남	20	16	0	0	
4	전배려	남	33	16	0	0	
5	조행복	남	21	10	0	0	
6	이마음	남	17	17	X	0	
7	이정성	여	16	16	X	0	
8	유인성	여	26	15	0	0	교육과정 협의진, 검토진
9	하민음	여	20	3	0	0	교육과정 핵심강사
10	남미소	남	8	8	X	0	
11	이협동	남	11	4	X	0	지역 교육과정 집필진 교육과정 유공교사
12	조축복	남	9	9	X	0	

3. 자료 수집

사례연구는 사례에 대한 심층 묘사를 위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한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는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 12명을 표집하여 사전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심층 면담을 1~2차례 실시하였다. 동시에 연간 교육과정 계획안, 학기별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계획안, 교과 교육 계획서 등 현지 문서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가. 사전 질문지

사전 설문은 연구참여자에게 비위협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은 주제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할 수 있게끔 하기에 연구자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Creswell & Poth, 2018). 교육과정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했는지 등에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지를 [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나. 심층 면담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가장 보편적인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이자,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심층적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목적성을 가진 대화로 연구참여자의 신념과 행동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김영천,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이 실행하는 교사를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주요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표 3] 사전 질문지의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질문 내용
교육과정 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관련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은 무엇이고, 그 경험 이후 선생님의 생각이나 수업운영 전반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교원학습 공동체, 교과서 집필 경험, 멘토링 경험 등)
교육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과정, 교과서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동일한 교육과정 속에서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생긴 선생님만의 철학, 특징, 장점, 또는 단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육과정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교육과정 계획, 학기별 수업계획표 등을 작성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 선생님의 수업계획과 운영이 되었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또는 선생님의 철학이 있는지 등)
교육과정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세요. ■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연수, 자료, 동료 교사와의 협의 등)

[표 4]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질문 내용
사전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수, 멘토링, 장학 등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수/멘토링/장학에 참여하며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으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있으시다면, 그 경험은 선생님의 수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참여하고 계시는 교원공동체가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목적을 지닌 교원공동체인가요? -교원공동체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 중학교 근무 경험이 있으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차이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과 교육과정은 0이다', 선생님께 0는 무엇인가요? ■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과서가 선생님의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개정되는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선생님의 수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동일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을 실행할 때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점을 3가지 선정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 교사들과 어떤 논의를 하시나요? -교육과정 계획할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의 수업에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5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선생님의 수업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나요?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부분의 장점/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심층 면담은 형식에 따라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등으로 구분된다(김영천, 2006). 반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의 구조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면담의 상황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이용함으로써 응답자의 조금 더 풍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참여자의 경험과 이해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면담 가이드를 토대로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을 사용하였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화상과 대면 면담을 모두 이용했으며, 면담 횟수는 1~3회, 대략 1시간을 진행하였다. [표 4]의 면담 가이드를 사용하되, 효과적으로 면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다. 현지 문서

현지 문서(document)는 연구와 관련된 문서, 영상, 디지털, 물리적 자료 등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Merriam, 2009). 연구참여자가 속한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계획서, 학기별 수업 계획서, 평가계획서 등의 현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에 활용하고, 교육과정 실행의 경험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대체로 수집된 자료를 의미 있는 조각으로 묶어 이름을 붙이는 코딩의 과정을 거치고 코딩된 것을 더 큰 범주나 주제로 묶은 후 시각 자료로 조직화하는 절차를 밟는다(Crerswell, 2016). 본 연구는 Wolcott(1994)가 문화기술적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제시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과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자료의 기술

자료의 기술(description)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이다(Wolcott, 1994). 현장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독자에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현지 문서의 자료를 정리하고, 심층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웃음, 어조 등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전사(transcribing)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개방형 설문지의 결과와 심층 면담의 전사 자료를 문항별로 정리하였다.

나.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analysis)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다(Wolcott, 1994). 해석의 준비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는 원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범주화하고 범주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미구조를 확인하는 절차이며(Padgett, 1998),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코딩(coding)을 분석의 주요 과정으로 삼았다. 코딩 후에는 그림, 표 등으로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해석 단계를 준비하였다.

다. 자료의 해석

자료의 해석(interpretation)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를 이해하게(understand)하는 일이다(Wolcott, 1994). 앞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연구자의 시야를 통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결정하는 단계로서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 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탐색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Tracy(2010)는 우수한 질적 연구 결과를 위해 8가지 공통 기준에 진실성(sincerity)과 신뢰성(credibility)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Creswell & Poth(2018)는 타당성(validation)의 개념으로 연구의 가치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수집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06).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다(Mathison, 1988). 삼각검증법은 현상에 대한 보다 타당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구성원 간 검토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는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와 해석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하여 결과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Creswell & Poth, 2018).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전사하고 요약한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참여자 중 몇 사람을 선택하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와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3)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 절차,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악마의 대변인’으로서 동료 연구자의 의견을 묻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김영천, 2006). 본 연구는 스포츠 교육학에 대한 식견과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동료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었다. 검토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성과 선입견이 가져올 수 있는 편향된 해석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표 5] 전문가 그룹 정보

성명	성별	나이	직위	학력
최영성	남	59	교수	체육학 박사
이덕성	여	52	교수	체육학 박사
김지성	여	33	교사	체육학 석사
구감성	남	31	교사	체육학 석사

나. 연구의 윤리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교육(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Program)을 2022년 2월 3일에 이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 심의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절차를 거친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IRB No. 2206_003-001).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한 자료를 보호, 암호화, 무기명 처리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에 걸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연구에 임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경력과 특징을 지닌 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깊게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 따라 드러나는 전문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의 3단계로 분류하여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관계, 환경, 교과 의 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 3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 특징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앞선 결과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를 제시하였다.

1.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전문성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국가의 교육철학과 의도가 담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며, 교육과정의 개발이 곧 수업으로의 실행을 의미하지는 못한다(전현욱, 2021). 이러한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천적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교과 담당 교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에서 직접 실행에 옮겨짐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은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계획이자 지침을 지역, 학교, 교사수준 각 층위의 현장으로 번역하고 실천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소경희, 2017).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며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이 이해, 계획, 실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이해 단계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계획이자 지침을 알고 교육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며 교육과정을 꿰뚫어 보았다. 다음으로 계획 단계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현장에 옮기기 위해 주변과 소통하고 번역하며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디자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현장과 연결하였으며, 좋은 체육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며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생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의 이해, 계획, 실행이라는 교육과정 실행의 단계에 따라 발견한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

과 정	이해 단계: 교육과정 꿰뚫어 보기	계획 단계: 교육과정 디자인 하기	실행 단계: 교육과정 생성하기
전 문 성	교육과정 내용 알기 - 교육과정 배경 지식 - 교육과정 내용 지식 - 다양한 교육과정 문서 활용	주변과 소통하기 - 학생과의 소통 - 동료교사와의 소통	교육과정과 수업 연결하기 - 나만의 교과서 제작 -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활기록부 작성 - 교육과정 실천의 다짐
	교사의 역할 이해하기 -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 -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재료 활용하기 - '핵심역량'과 '체육과의 역량' 활용 - '영역'과 '성취기준' 활용	좋은 체육수업 만들기 - 최고의 수업 환경 조성 - 유연한 수업 진행 - 디지털 자료 활용 -교과 외 활동과의 연계
	교육과정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 왜 교육과정을 잘 쓰지 않는가? - 왜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가?	나만의 교육과정 개발하기 - 창의적 수업 내용 계획 - 환경을 고려한 수업	수업 되돌아보기 -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평가 - 반성적 수업

가. 이해 단계: “교육과정 꿰뚫어 보기”

교사가 무엇을 이해하고 가르치는지는 교육과정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진, 2006; 정혜승, 2002). 교육과정의 이해란 교과관 및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 및 태도, 교육과정 내용 및 교과서 이해와 해석 방식, 교과서 사용 방식 등을 의미하며,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학생의 학습을 좌우한다(이경진, 2006). 본 항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알기, 교

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 이해, 교육과정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 내용 알기

가) 교육과정 배경 지식

교사는 교육과정의 배경은 어떠한지, 그러한 배경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며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한다. 교육과정의 발생적 맥락에 대해 앎으로써 교사는 교육과정 문서를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백남진, 2013). 교육과정은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때 변화하는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수업에서는 자르거나, 변형하는 등 교사의 의도와 교육과정을 적절히 융합된 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앎으로써 교사는 교육과정을 수업에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단편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을 적용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써 적극적으로 ‘돌리고’, ‘자르며’, 즉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교육과정이 또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잡고 바뀌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참 쉽지 않지. 자기 살기 바쁘고, 연수도 없고, 그냥 문서만 보고 우리가 뿌리기가 급급하잖아. 그런데 그런 방향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구성을 할때에도 조금 더 프리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라서 여기'가 아니라. 방향성은 이렇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자르고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지.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는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13년 차 경력의 임전문 교사는 저경력 시기에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나타난 배경, 이유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수업에서 ‘더 넓게’ 생각하고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제 더욱 근본적인 얘기인데 교육과정은 문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어떤 배경이 있거든.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 교육과정을 조금 더 똑바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음. 나는 그때 2015 개정, 2009년도부터 교사를 했으니까. 그게 왜 종목 중심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게 된 이유, 그리고 교육과정을 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 놨는지 이런 걸 알면 그래도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더 넓게 생각하고 구성을 할 수 있더라고.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이후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유인성 교육과정의 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의 목적을 오해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 전에 종목 중심이라고 해서 7차까지는 운영이 되었는데. 07부터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이라고 해서 사실 문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환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신체활동 가치 중심, 신체를 통한 가치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 삶에 체육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생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그때부터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걸 오인하게 되면 체육은 신체활동은 묻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이지, 신체를 저버리는 가치는 아닌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교육과정 실행을 다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축구라는 종목을 토대로 같은 수업내용을 구성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내 경쟁 영역과 신체활동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없이 수업내용만을 따라 하는 것은 학생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임전문 교사는 이러한 예시로 축구

수업을 할 때, 단편적으로 ‘경쟁’ 단원의 ‘축구’를 수업하는 것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축구’를 알고 수업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되게 웃긴 건,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수업을 구현하고 있지만, 생각 자체가 다를 수 있어.

연구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연구참여자: 예를 들어서 ‘음, 이번 학기에는 경쟁 활동 내에 있는 축구 수업을 합시다’라고 해서 같은 학년에 수업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잖아.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합시다’라고 계획하는 거랑 또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합시다’라고 하는 거랑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지. 그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형태는 같을 지라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다르지. 생각하고 주는 것과 형태만 가지고 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왔으며, 최근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할 준비 중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는 모습 또한 교육과정 배경에 대한 지식이라 볼 수 있다.

2022개정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미리 공청회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움직임, 스포츠, 그리고 건강인가. 그런 세가지로 대단원이 바뀌고. 생태형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골프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스포츠, 기술융합형 스포츠같은 것도 있고. 내가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갔네? 그럼 여기에 e-스포츠도 들어가나?같은 게 궁금하니까 이것도 안들어갔네?도 찾아보고.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나) 교육과정 내용 지식

교사의 적절한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Shulman(1987)은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을 교사의 지식

의 하나로써 제시하며, 교사의 교육과정 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때, 교육과정 지식이란 문서와 자료들에 관련한 지식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와 의 면담과 평가계획서를 통해 그들이 지닌 교육과정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협동 교사를 통해 교육과정의 ‘역량’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과 체육과 각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의 관계를 고민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총론을 토대로 체육과 각론을, 체육과 각론을 토대로 총론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일단 첫 번째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체육과 교육과정 속독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리고 총론 수준에서 체육과가 총론에 어떻게 기여하는구나, 이해하고. 지식정보처리역량,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같은 역량들, 총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정도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의 첫 장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시작되며(교육부, 2015b), 추구하는 인간상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명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과 의 성취기준이 모두 도달되었을 때 교과역량이 향상되고, 다양한 교과목들의 교과역량이 길러질 때의 모습이 인간상에서 드러내고 있다. 즉, 인간상은 각 교과 의 목표,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협동 교사와 유인성 교사는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뒤에 이어지는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교과 의 성취기준이 모두 도달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이라는 게 있고. 국가 교육과정은 이제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량을 길러낼 것인지를 인간상에서 단편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각 효과가 협업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전반적으로 빼놓을 수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간상을 기본으로 성격과 목표인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되어야 인간상 아래 성격과 목표가 연결되긴 하지만. 그게 기본이 되어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현재 2015 개정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체육>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은 진로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교과목을 이해하는 것 또한 각 학년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유인성 교사는 체육 과목은 중학교 체육의 연장선이자 심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스포츠 종목을 배우면서도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배웠다면, 고등학교에서는 경기, 전략과 같은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운동과 건강 과목은 체육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과 삶이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 생활 과목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화 과정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체육은 중학교 연장선의 심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전반적, 전체적인 것들이 약간 그 안의 내용이 중학교보다는 심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는 배구에서도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하고, 게임도 안하잖아요. 게임을 하되 변형게임을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경기 방법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하는' 것에 치중을 두죠. 내용도 더 확대된, 약간 다른 기술들을 하죠. 중학교는 농구도 패스나 드리블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하면, 고등학교는 그걸 활용하는 기능 위주로, 내용 자체가 교과서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중략) 운동과 건강은 건강을 기본으로 다 연계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체육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건강과 삶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근성 있게 하죠. (중략) 스포츠 생활에는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이제는 생활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내용 지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였

다. 우선, 임전문 교사는 체육교과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축구라는 종목 내에서도 수업 활동과 내용에 따라 ‘경쟁’과 ‘도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면 ‘축구는 곧 경쟁 영역’이라고 잘못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건, 도, 경, 표, 안’으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보면 경쟁에 있어서는 축구는 무조건 경쟁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구는 축구 안에 도전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런거야. 그리고 능이랑 기술, 전술도 가르치고,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체육교과 영역과 더불어 성취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성취기준을 이해함으로써 수업을 돌아보고,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이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취기준을 보고서 여기서 내가 한 활동을 돌아보고, 내가 수업하고 계획한 것을 성취기준을 읽어봤을 때 내가 납득이 되는지. 협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과제를 구상한다면 축구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인 과제를 반복해서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도전 활동에 도전영역에 적합한 활동이구나. 그러면 이건 교육과정 기준에 이걸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과목의 구성, 그리고 각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과 성취기준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내용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다양한 교육과정 문서 활용

교과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연수 자료 등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문서가 교사들에게 제공된다.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문서를 활용하고, 요구하는 등 체육과 교육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하며 전문

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 문서로는 대표적으로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집이 있으며, 교육과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과정 실행에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자료로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있었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체육수업은 체육관, 운동장과 같이 교실 밖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들과 달리 교과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었다. 우선, 이성실 교사는 교과서 집필을 통해 교과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덕분에 수업에 교과서 내용을 녹여내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도 교과서 집필이며, 교과서 내용의 취지와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알고 있기에 교과서를 수업에 많이 녹여낼 수 있던 것이다.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제가 쓴 교과서를 제가 잘 활용하니까.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녹여 내기가 되게 좋았죠. 남이 쓴 교과서를 단순히 그냥 쓱 훑어보고 그걸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걸 어떤 취지에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배치가 되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와 하민음 교사는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 교과서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체육관 수업, 운동장 수업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교과서의 사진, 활동지를 발췌하고 체육수업에서 활용함으로써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저는 교과서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교과서의 사진이나, 도안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패들릿이나 설문지에 공유하는 편이에요. (중략) 그리고 서술형 평가를 할 때에는 교과서에 있는 범위에서 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일단 읽어보고 교과서에서는 저는 활동지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중략) 교과서 보고 발체를 해요. 교과서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집’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에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네 개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교사들에게 배부되었다(교육부, 2018). 유인성 교사는 이러한 자료집을 활용함으로써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고 체육수업에 적용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교과서도 많이 활용하고.

연구자: 교수학습 평가집에 어떤 내용이 있죠?

연구참여자 :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게 있어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집을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집은 교육과정 내용을 직접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기록까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민음 교사는 설명하였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있잖아요. (중략) 다들 수업하고 바쁘고 시간도 없겠지만, 이 책자가 거의 교육과정과 관련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할 건지를 알아야 교육과정, 수업, 기록이 일체화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2) 교사의 역할 이해하기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달라진다. 충실 관점은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용하는 역할을, 상호작용 관점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교사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생성 관점은 교사가 직접 가장 적절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역할을 기대한다(이윤미 외, 2015).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은 어느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충실도와 생성 관점을 양 끝으로 하는 연속선에서 변화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 또한 교육과정 사용자이자 실행자로부터 교육과정 개발자까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교육과정 실행자이자 개발자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서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모습으로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었다.

가)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실행자란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완성된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서경혜, 2009). 이때, 교육과정 실행자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육과정 사용자와는 다르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살펴본 교육과정 실행자의 모습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현장 적용에 충실하되,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는 우선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으로 재구성해야 하기에, 하민은 교사는 교육과정을 ‘알기

싫어서' 교육과정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살짝 최근에 느낀 건 교과서가 있고, 교육과정 해설서, 지침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싶어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덮고, 교육과정도 덮고, 알기 싫고 어려워서 덮고, 그냥 자기만의 수업과 경험, 임용교사 치기 전 내가 배워왔던 걸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이 아니었나 그냥. 그러면 시대적인 변화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목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지침에는 분명히 성취수준이나 도달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실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걸 해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 교육과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선택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7차든, 2015든 너무 개발이 잘된 건데, 이 개발이 잘된 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중략) 그래서 교육과정을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지, 올해는 이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 또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때,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했을 때에는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주의하여 교육과정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오개념 시험 문제나 수업에 대해 오개념이 있듯이, 교육과정도 오개념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 또한 교육과정에서 무작정 벗어난 수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 혼자만의, 나의 경험에 의한’ 수업은 검증받을 수 없는 수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여 개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더욱 중요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하였다.

무언가 답은 아니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개발하고, 자문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과정이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혼자만의',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혼자 경험 하의',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가치 하의', '나 혼자' 가르쳐야겠다는 내용이 맞을까 생각해봤을 때, 나의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대상이라 인지하고 있었다. 즉, 교육과정을 배제하거나 벗어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현장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체육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특성과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교육적 필요성과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 교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좋은 체육수업을 만든다(유정애, 2010).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

우선, 전배려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계기를 말해주었다.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한 뒤, 주변 상황과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고 깨달았던 것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문서에서 무엇무엇 등이라 얘기했으면, 등 외의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내가 내

수업환경과 여건에 맞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측면에서 교사가 자기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내 학교 수준에 맞고, 내 주변 아이들이 누려 보지 못한 것이라면 가져와서, 만들어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자 수준까지 가야되는 것이 단위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경될 필요가 있으며, 변경의 주체는 교사임을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모든 내용을 다룰 수만은 없기에, 큰 틀에서는 맞추되, 현실 상황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큰 틀 수준에서 만지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구성원, 학교 등 여러 가지 사정은 교사 수준에서 보완하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또한, 교육과정은 이상적, 추상적, 원칙적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해석하고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과 현실 사이 중재자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것, 그리고 교사가 바라보는 현실의 것의 합의를 찾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원칙이지만 이상적일 수도 있고, 방향성이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못하죠.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죠. (중략)국가 교육과정은 이상적인 걸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현실을 계속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합의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교사의 역할이에요. (중략) 교사로서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풀어서 전달하는 게 교사의 역량이고 전문성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게, 대학교는 대학교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구성주의 교육이론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일제식 수업보다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박민정, 성열관, 2011). 이러한 흐름에 의해 일제식 수업보다는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 수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마음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교사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이 모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시되는 ‘탑 투 바텀’ 형식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바텀 투 탑’의 형식이 되어 교사가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걸 교사가 스스로 재해석해서, 수준에 맞추어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저도 환경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구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맞다고 하지만, OOOO(교사학습공동체)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바텀 투 탑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예전처럼 찍어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에게 ‘개발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실행하되 현실에 맞추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나아가 교사가 먼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바텀 투 탑’의 개발 형태가 필요할 정도로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

교육과정 사용자와 개발자로서 교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우선 교사는 수업의 근본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사는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민음 교사는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사 역량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이

곧 생활기록부와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에 생활기록부와 교육과정 연수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육과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를 듣는 것이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음, 미술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교육과정도 관심을 가져야 보이더라고요. (중략) 저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우선 알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연수를 받아 봐야 평가 계획서든 수업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세특(생활기록부 세부능력특기사항)에도 뭘 적을지 계획하고 한 학기에서 일 년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들아, 반 가워. 내가 하고 싶은 종목 막 할게."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면 연말에 "어, 뭘 적어주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관련 연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일반 교육과정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도 의무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외에 개인적인 전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접 돈 주고, 자물이나 무료 연수도 신청해서 들으러 가야 하죠. 나의 인생,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수업과 정확한 평가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 또한 교육과정 관련 연수를 많이 들으면 교육과정을 ‘내것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그냥 읽고 넘기는 것보다, 관련 연수를 찾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연수를 들어보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들어야 새로운 걸 알고, 그거를 가지고 '내것화'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듣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읽어만 보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공청회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통로가 되었다.

임전문 교사는 초임 시절 이후 2009년부터 교육과정 공청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이해하였으며, 교과서 집필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 임용고시 공부할 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체육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2015나 2022나 공청회 같은 곳에도 들어가 보고. 막 공청회 패널리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초임 때, 얼마 안 되어서 공청회 가서 보고. 여러 교수님 멋있고. 000 교수님 뒤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등등. 왜냐하면 우리 미래의 후배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체육교육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가면 교과 이기주의가 엄청나더라고.

연구자: 09 때도 가시고, 2015 때도 가셨던 거예요?

연구참여자: 응, 이번에 2022 때도 줌으로 들어가고. 그 방향성을 알아야 교과서를 쓸 때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쓰는건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 이사람들이 답변을 해주니까.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에게 교육과정 공청회는 앞으로 개정될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되었다. 다가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알게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내용도 들어간 건지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 2022개정처럼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 있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미리 공청회도 들어갔고. 이번에는 움직임, 스포츠, 그리고 건강인가. 그런 세가지로 대단원이 바뀌고. 생태형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골프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스포츠, 기술융합형 스포츠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갔네? 그럼 여기에 e-스포츠도 들어가나?같은 게 궁금하니까 이것도 안들어갔네?도 찾아보고.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수를 듣거나, 교육과정 공청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꾸준히 학습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곳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교육과정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비판적인 시선은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사용하는 교육과정 사용자가 아니며, 객관적이

고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교육과정을 바라봄으로써 교사는 더욱 자신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전문 교사는 교육과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판’하는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애정이 더욱 쌓임을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옛날에 비해 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비판이라는 게 그냥 안 좋게만 아니라, 이것은 좋다, 이것은 좋지 않다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비난이라고 하면 안돼, 필요 없다! 하는 거지만, 비판이라 하면 '아,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고 훌륭하고. 목적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건 필요 없고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 또한 비판적인 자세로 교육과정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무작정 교육과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형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해요. 해야 하니까 따라 하고, 이게 있으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국가수준은 국가수준일 뿐이고,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변형하고, 어떻게 변형할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전배려 교사는 교육과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떻게 체육과 교육과정을 잘 제시하고, 현장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우리는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의 모형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한 5~6년 했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교육과정의 문제점. 이게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이 교육과정을 좀 잘 읽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읽는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적을 자신의 시선에 맞추어 받아들이고,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행으로 변형되기까지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더불어, ‘왜 교육과정을 잘 쓰지 않는가?’, 그리고 ‘왜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각자의 해결방안을 찾아내며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으로서 제시하였다.

가) 왜 교육과정을 잘 쓰지 않는가?

교육과정은 ‘사용하지 않는 베스트셀러’이자, 교육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이지만, 현장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교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제 왜 체육교사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을까...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체육교사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체육교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신체활동 학습의 요소는 무엇인지, 교육과정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수업이 이렇게 달라야 할까, 그리고 다른 게 정상인가, 그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향점은 이게 체육이니까 종목을 배운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의 신체활동 학습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개연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전배려 교사는 교육과정이 대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지 못하는지,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은 현장과 관계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과정이 어째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 국가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우리는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의 모형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한 5~6년 했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나) 왜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가?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교과서 내용,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는 왜 체계적이지 않은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비체계적이라 비판받는 측면은 세 개로 체육 교육과정의 내용, 체육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의 체계가 있었다.

우선 첫 번째, 교육과정 내용이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협동 교사는 야구라는 신체활동을 예시로 들었다. 야구를 가르칠 때 단계를 정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내용이라도 되게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략) 지금 야구의 레벨 1, 2, 3이라는 것을 교사가.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걸 교과서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건 건강 단원이 거의 유일해요. 건강 단원은 내용적으로 분화되는 게 그래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체육교과에서는 통상 다른 교과에서 질문하는 ‘너는 어떤 과목 수업해?’가 아닌 ‘너는 무슨 종목 수업해?’라고 질문한다. 수업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가 아니라 ‘어떤 종목을 못하니?’ 또는 ‘어떤 기술이 안되니?’로 질문한다. 이협동 교사는 이렇게 단원의 체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동능력과 종목에 치우치는 점이 체육교과가 기초교과로 도약할 수 없는 한계라고 이야기하였다.

왜 우리는 ‘너는 무슨 종목 수업해?’ 하고 묻잖아요. 지금 어느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은 ‘지금 어디가 부족해?’가 아니라 각자 운동능력 속에서 종목 활동을 하는 데 치우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기본 교과로는 도약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체육교사로서 저는 되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둘째, 여러 교과서에 논리적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마음 교사는 교과서 분석을 하며 논리적 체계가 없는 교과서가 많은 것을 발견했던 경험을 말해주며 PAPS를 예시로 들었다. 잘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는 PAPS 측정 후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운동까지 연계가 잘 되어 있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인터벌트레이닝’, ‘웨이트트레이닝’, ‘순발력’, ‘근지구력’과 같이 내용이 논리적 연계성 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내용만 산만하게 집어 넣어서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제가 봤던 것 중 예를 들면, PAPS 측정을 해요. PAPS 측정을 하면 애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한 교과서는 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 약한 것의 문제점, 약한 것을 강화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연계가 되고 논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그 다음 장애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터벌트레이닝' 딱 나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교과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엔 '웨이트 트레이닝'이 딱 나와 있어요. 웨이트트레이닝 중에서도 순발력이 떨어져 있다, 근지구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발달되는지가 차례차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선생님들 입장에서 PAPS 측정을 했어. 애들이 떨어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파트를 보고 너네가 해보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물어봐. 그러면 활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웨이트트레이닝 부분에서 학생이 어떻게 찾아서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도하기가 힘든거야. 내가 책을 놓고 가르치더라도 논리적으로 체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걸 이렇고, 이걸 이렇고, 설명하기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웨이트트레이닝 중에서 뭘 짚어서, 뭘 어떻게 하니까 너무 불편한거지, 기본적으로. 누가 쓰겠어요, 그걸.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셋째, 교육과정이 개발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지역수준 교육과정, 학교수준 교육과정,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차근차근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협동 교사는 중간단계에 있어야 할 지역수준과 학교수준 교육과정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또한 교육과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하였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합의점을 구현할 수 있는 시도 만의 교육과정이 다시 한번 개발이 되고, 시도 교육과정을 보았을 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해졌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가 또 자기 수업을 재구성하는 건데. 학교단위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과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지역 교육과정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바로 교사한테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막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 것 같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는 ‘운동과 건강 생활’이 있었으며, 현재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운동과 건강’이 있다. 이정성 교사는 학교에서는 파일 이름만 수정하고 있었고, 교과목 이름이 이유도 없이 변화한다고 이야기하며, 교육과정이 ‘마음대로’ 였다고 표현하였다.

한때는 운동과 건강 생활이었어요(웃음).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바꾸면서 바꾸는 의도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는 그냥 파일명만 수정하고 있으니.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이 지닌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생각은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겼으며, 더 발전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왜 교육과정을 잘 쓰지 않는가?’, ‘왜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었다.

나. 계획 단계: “교육과정 디자인하기”

디자인이란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 단어로(박연실, 2010),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적인 활동이다(이광원, 2012). 교사는 교육과정을 이해한 뒤 교실의 상황에서 실행하기 전, 교실의 상황과 학습자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한다.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관찰한 교육과정 실행의 ‘계획 단계’에서는 좋은 수업이라는 목적을 위해 교육과정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디자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주변과 소통하기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실행되기까지는 국가, 지역, 학교, 교사의 수준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교육과정은 지역주민, 학교의 다양한 선생님들, 실행 주체인 교사들, 그리고 실행 주체이자 대상인 학생들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학생과 주변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학생과의 소통

교사는 수업을 계획하며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 곧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김경자, 2003).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학생들의 사전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수업내용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성실 교사는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다섯 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이전 학년에 배웠는지 파악하고 수업내용을 선정하였던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전 학

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평가기준안을 통해 추적하고, 배우지 못한 영역들은 무엇인지 파악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년에는 채워줄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게 학년별로 건도경표안 내용영역을 하나씩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가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평가기준안, 그 전전년도 평가기준안을 추적을 해요. 그래야 애네가 1학년 때 뭘 배웠고, 2학년때 뭘 배웠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똑같아요. 표현과 안전을 안배웠어요. 그러면 3학년때는 반드시 표현과 안전을 아주 적게나마 반영을 해야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역추적하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 또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학생들이 과거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파악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배웠던 종목이나 내용이 라면 계열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내용 후에는 게임과 같은 심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고 설명하였다.

1,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종목을 3학년에, 1학년, 2학년도 중학교때 배웠던 내용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왜냐하면 체육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1학년 때 배구의 토스만 했다면 심화로 들어가서 2학년때는 배구 게임도 하는 거죠. 고2는 고3때 플로어 볼 할 걸 생각해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몇 개 코트를 쓰고, 환경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3개년 동안 다양한 영역을 걸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 또한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수업내용을 계획하였다. 고등학생들은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미 다양한 종목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통적으로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의 스포츠 종목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때문에 하민음 교사와 마찬가지로 이성실 교사는 기초적인 내용 이상으로, 본격적인 경기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내용을 계획한다고 설명하였다.

농구랑 배구랑 탁구를 1학기 때 했는데, 이번에 수행평가까지도 끝났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일 학년 때까지 농구 배구 탁구를 수행평가를 애들이 거의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익숙한 애들이라서 가급적이면 게임이랑 연계를 시키려고 많이 해요. 예전에는 농구면 간단하게 슈팅, 드리블, 패스같은 기초기능만 봤을 거예요. 그걸 이제 3on3랑 연계를 시켜서.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마음 교사는 학생들을 만나기 전 2월에 수업 및 평가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우지만, 3월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PAPS 측정을 하며 학생들과 소통한 뒤에 구체적인 기준을 계획한다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을 통해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2월에 대략 짜고, 3월에 애들 보고 대충 저는 PAPS 측정하면서 애들이랑 놀아주잖아요.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1학년은 어느 정도다. 기준을 좀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거죠.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뿐만 아니라, 가르치게 된 학생들의 운동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에게 맞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뉴스포츠를 적절히 섞어 가며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었다.

또 우리가 잘 관찰해야겠죠. 여기에 오는 애들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저는 애들을 관찰하고 한 걸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게, 교육과정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중략) 그냥 내가 좋고, 나한테 맞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보고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아 여기 애들은 운동 잘하는 애들이 저기 학교로 많이 가고, 여기는 못하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뉴스포츠를) 3정도로, 4정도로 높여야 돼. 자존심이 상하지만 뉴스포츠를. 그리고 여기는 재미있어하면 좀 줄이고.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 또한 배구 게임을 수업에서 하면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원바운드 배구’와 같이 쉬운 게임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배구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바운드 배구를 하면 되게 되게 쉽잖아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정성 교사는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여학생들의 특징에 따라 수업을 계획한다고 설명하였다. 단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완수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점차 스포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였다.

여학생 수업을 많이 하면, 여학생들은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1차 과제를 완수하고, 2차 과제를 완수하는 걸로 학생들이 이 수업에 들어오게끔. 이 종목을 친숙하게 느끼고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학생과의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하는 것이 좋은 체육수업이자 곧 교육과정 실행이라고 설명하였다.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 생각했더라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교사의 입장에서만 잘 된 수업일 뿐이라 생각하는 것이었다.

좋은 체육수업은 학생이랑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그 수업이 잘 된건가? 교사의 입장에서만 잘된 건 아닌가? 생각해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임열정 교사는 학교의 문화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수업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체육이 인기 없는 학교일 수도, 인기가 있는 학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기 초 학교와 학생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학교의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체육 약간 죽어 있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펼쳐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피고. 처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3~5월, 3개월 동안 현장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사전경험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업 내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하고, 학생들의 운동능력, 학교의 문화를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가르칠지까지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학생과의 적절한 소통이 교사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 동료교사와의 소통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관련 문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교육과정 실행을 탐색할 때에는 문화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윤미, 2020). 소통 여부는 교육과정 실행의 양상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동료 교사와의 소통은 교육과정 실행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로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미, 2020).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교사와의 소통을 학교수준 교육과정과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료 체육교사와의 타협과 조율의 과정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료 교사와의 소통 역량은 교육과정 계획 과정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 계획 때면 동료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지향점과 교육과정을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그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조율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다고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지향점이 있고 문서가 있고 다른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 소통함으로써 평가와 수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함께 맞춰감으로써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 남미소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수업과 평가 내용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네, 제가 생각하는 걸 설득을 하려고 하는 편이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같이 맞춰서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수업의 방향을 함께 다 공유하기도 하고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성실 교사는 교육과정을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료 교사와 소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성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점은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직접 보강을 들어가거나 활동지를 동료 교사에게 나눠줌으로써 교육과정에 맞춘 수업을 계획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설명해 주었다.

같은 교과에 들어가는 동료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다르죠. 그 선생님은 그거 굳이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뭘 맞추냐. 그러면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어찌 됐든 악법도 법이라고 맞추라고 하면 아주 작게라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혹서기나 혹한기, 아니면 최근 같은 장마 때 교실 수업할 때 애들이랑 활동 좀 해라. 내가 활동지를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내가 보강을 들어가서라도. 그렇게까지 말씀들 드리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교사와 수업에 대해 조율하고, 또는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 교사를 설득하기도 하며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수준 및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동료교사와의 소통에 교사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2) 교육과정 재료 활용하기

가) '핵심역량'과 '체육과의 역량' 활용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는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6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b).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이 제시되었다. 지난 10년간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며(김필성, 2021)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역량을 중심이자 큰 틀로 수업을 계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여기서 포함시켜서. 체력운동을 시키면서는 뭔가 자기를 극복하는 거라든지. 자기 극복의 경험, 또 한계에 도전하는 경험. 그걸 일회성으로 하면 경험시킬 수 없잖아요. 뭔가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체육과 역량이 수많은 신체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활용할 수도 있다. 수많은 스포츠 종과 뉴 스포츠도 있으나, 교과역량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은 기본을 토대로 다양성을 발휘할 방안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교과역량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총론의 6가지가 전체 교과를 위해서라면, 체육에서의 4가지 역량이 수백 가지의 스포츠 종목과 뉴 스포츠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틀이었잖아요. (중략) 적어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영역, 내용 요소와 연관 지어 교과역량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인성 교사는 도전 활동, 경쟁 활동과 같은 내용 영역 속에서도 게임 수업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때 연관된 역량을 함께 가르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에 있는데. 국가수준 교육과정 중에서 도전 활동이다. 그러면 도전 활동에 관련된 것 중에서, 아니면 경쟁 활동 관련된 것 중에서 대부분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요소가 있잖아요. (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배움을 키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나) '영역'과 '성취기준' 활용

현재 체육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내용 체계는 영역, 내용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란 교과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를,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을 의미한다(교육부, 2015b). 연구참여자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고 있었다.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으로부터 가르칠 '내용'을 정한다(유성열, 정광순, 2020). 남미소 교사 또한 연간계획 및 평가계획에 성취기준을 제시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먼저 연간 계획서는, 사실 평가계획에서는 모든 학교가 성취기준을 넣게 되어있잖아요. 내용도 선정해야 되고. 내용 그리고 그것에 맞는 성취기준, 그리고 그에 맞는 평가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성취기준은 거의 국가수준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교사의 철학에 따라 변형하여 성취기준을 작성하고, 자신의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남미소 교사는 팀 평가에 대한 성취기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성취기준을 추가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성취기준을 더욱 활용할 수 있었던 경험을 설명해 주었다.

경쟁에서 팀 평가에 대한 성취기준이 명확하게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팀 평가를 넣고 싶었는데 성취기준에 어떻게 반영할까, 해서 기억나는 게 팀 평가를 위한 경영 경쟁에서 팀 평가에 대한 그 성취기준이 명확하게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평가를 좀 넣고 싶었는데 이걸 성취기준을 어떻게 반영할까 생각하다가 뭐 어떤 동작과 활동을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변경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그런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공

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1등이든, 2등이든, 다 노력한 것 자체가 달성한 거죠.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면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과’를 고려하여 가르칠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유성열, 정관순, 2020). 임전문 교사는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육 과목에서 제시하는 영역을 모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수업 계획 중에 어떠한 종목을 계획하기에 앞서 교육과정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구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만약에 내가 드론 수업 구상을 해. 그러면 음, 드론은 어디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중략) 이번에는 5가지의 가치를 모두 가르쳐야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를 하잖아.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3) 나만의 교육과정 개발하기

가) 창의적 수업 내용 계획

교사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과의 내용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에서 활용될 교육 자료, 교수·학습 방법, 적합한 소재 등을 검토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춰 창의적인 수업을 계획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배려 교사는 수업 장소로 교실밖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맞추어 ‘비비탄 쏘기’라는 창의적인 수업 재료를 계획하였다. 최근에는 스포츠 스테킹(컵 쌓기), 저글링 등 다양한 교실 스포츠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나, 다양한 교실 활동이 제시되지 않던 25여 년 전, 비비탄 쏘기는 매우 획기적인 수업 활동이었다.

어떻게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활동을 교실에 가져올 것인가? 그때는 컵쌓기도 없었고, 저글링도 보편화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였죠. 아,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걸로 해야할까. 요즘에는 저글링도 하고, 컵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지. 저글링도 감히 생각 못했고. 스타킹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급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것이 사격이었던 거죠. 비비탄 쏘기.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창의적인 수업을 계획하며 교과 내의 내용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융합도 시도도 가능하다. 유인성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면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교과서도 참고하여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고 설명하였다. 도전 영역에서 표적 운동을 한국사 교과의 항일투쟁 단원과 융합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지금 쓰는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도 저는 참고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교과서, 그리고 다른 교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학기 때는 제가 다른 교과와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에요. 한국사와 지금 컨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 전체적인 것을 융합시킬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도전 활동, 표적 운동을 하려고 해서 한국사 쪽에 2학기 때 가보니까 근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일투쟁과 연결해서 한번 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한번 아이들하고 하고. 저는 또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국사 선생님과 의논을 했어요. 융합이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시도해서, 한국사 선생님한테는 시나리오 작성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항일투쟁에 대한 내용, 저는 표적 운동을 해서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타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타 교과의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내용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인성 교사는 다른 교과 교사가 총론의 핵심역량과 각론의 교과 역량을 연결 지어 자신만의 수업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벤치마킹하여 체육수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른 교과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보면서 이걸 응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역량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론의 역량과 각론의 역량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너무 괜찮다, 해서 2학기 때는 벤치마킹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타 교과와 수업내용,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수업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인 수업 계획도 가능하다. 하민음 교사는 다른 교과와 활동지를 통해 창의적인 체육 교과만의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번은 지리 교과 선생님이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핑(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여 체육수업에서도 활용한 적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 여러 교과에서도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지리 선생님이 타이포그래핑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숨어 있는 글자를 이미지화하는 건데, 그때 처음 보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도 체육과에서 활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체육 교과만의 활동지만을 보지 않고, 여러 교과, 다른 교과에서 활동지를 많이 만들고 퀄리티도 훨씬 좋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체육과에서 접근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교과에 맞게 변형하고. 그렇게 시간도 아끼면서 새로운 활동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자신만의 창의적인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것을 모방하며 조금씩 변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행복 교사는 기존의 종목을 조금씩 변형시키며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기존의 야구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투수와 타자가 같은 팀이 되도록 개발한 ‘베이스볼식스볼’, 야구배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테니스 라켓’을 쥐어 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저 선생님 잘한 것, 나도 해볼까? 되네? 그런데 그것도 100% 모방은 아니에요, 다 바뀌죠.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고. 그러다가 나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베이스볼 식스볼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왜 투수와 타자가 꼭 달라야 하지? 다른 편이어야 하지? 잘 주니까 잘 쳐. 그러면 투수를 타자랑 같은 편. 그러니까 애들이 잘 주고, 잘 치고, 더 잘 나가.

연구자: 학교에서 딱이네요.

연구참여자: 네, 학교에서 딱이죠. 여자애들은 테니스 라켓으로 쳐. 정말이요? 땡-, 피웅- 잘나가. 수비를 못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잘 살아서 나가. 남자, 여자가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평가 방식은 수업 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의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협동 교사는 수업용 기구가 없이 인터벌, 서킷 형식 트레이닝을 가르치며 과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한 번의 트레이닝에 참여하여 수업의 기준점에 도달한 횟수를 점수로 누적하는 방식으로 평가는 이루어졌다.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이협동 교사만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수업용 기구가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육수업이 인터벌이나 서킷 형식의 트레이닝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애들이 하게 만들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도장판도 활용하고, 한번 할 때마다 점수가 누적되는 형식. 우리가 평가할 때 그냥 결과적인 평가에서 너희 지금 상태가 어떠냐를 결과 평가를 하는데, 과정 평가로 바꾸고 형식으로 바꾸면 결국 교사가 제공한 수업의 기준점에 도달할 횟수가 누적돼서 점수로 전환될 수 있게 평가를 구성하는 것도 그냥 용 기구 없이 수업을 하는 것 중에 좋은 것 같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조행복 교사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 운동 수준, 성취감을 고려하여 새로운 평가 방법을 계획하였다. 일반적인 자유투 평가만으로 40점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투에는 10점, 새롭게 고안한 ‘리듬 바스켓 트레이닝’으로 10점 등으로 다양하게 쪼개어 평가를 계획한 것이다.

자유투를 40점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투 10점, 리듬 바스켓 강강술래 10점, 이런 식으로 쪼개두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못해서 10점 짜리를 8점이나 6점을 맞아도 마음이 좀 편하라고. 나는 다른걸로 회복할 수 있어.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나) 환경을 고려한 수업 계획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되어 지역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실행된다. 지역, 학교의 특수한 환경은 각 수준의 교육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윤경(2015)은 학생 요인 및 환경 요인을 교육과정 재구성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시설과 환경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열정 교사는 학교를 옮겼을 때, 교육과정을 계획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여건, 그리고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저는 옮기면 첫해에 그 학교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학교가 갖고 있는 시설, 여건, 환경...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다른 교과에 비해 체육교과는 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수업을 위한 여러 장소가 제공될 수 있음과 동시에 장소에 따라 가능한 수업내용, 방법 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기 전 체육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가능한 장소 및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탐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전배려 교사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동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계획했다고 말하였다.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선택할 수 없어. 아, 그렇다면 나는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아, 1년간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만들 수도 있구나.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 또한 장소의 부족이나 네트와 같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던 경우가 있었는데,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만약 우리학교에서 장소나 이런 게 부족해서 온전한 배드민턴 수업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네트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학교 상황에 맞추어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사수준 교육과정에 필요하지.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계획 전 체육수업을 위한 공간까지도 계획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조행복 교사는 체육관에서 배구수업을 하기 위해 다른 학년과 시간표를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도 가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체육관은 수업계 선생님께 2학기 때 배구수업 하는데, 바로 개학하자마자 시험을 할 건데. 2학기 때 수업은 3학년이 한 시간도 안 겹치게 해달라, 한 반씩만 들어간다.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남미소 교사가 소개한 사례는 철원과 화천의 수업이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심보다 자연환경을 가까이 마주할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며, 환경에 맞추어 스키, 낚시 등의 수업 내용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경쟁 및 도전 영역을 가르친 것이다. 이는 환경에 맞춘 창의적인 교사수준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철원이랑 화천 이쪽에서 작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보면 자연환경에 맞춰서 낚시, 스키, 캠핑,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것도 좋네' 생각했어요. 낚시 수업도 하고, 스키는 이쪽에서 워낙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학생 수가 적어서 일반 경쟁 스포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체육교사들은 학교 시설의 특징,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자신의 수업내용과 수업 방법을 설계하거나, 자신의 수업 내용에 맞추어 환경을 설계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다. 실행 단계: “교육과정 생성하기”

교사는 앞선 교육과정 이해 및 계획의 단계를 거쳐 교육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러한 단계는 수업을 실천하며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생성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남미소 교사가 설명하듯 체육수업은 다른 교과에 비해 교사수준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큰

과목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킨볼’이라는 하나의 신체활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준과 분위기 등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과 구체적인 수업 방법까지 모두 교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육은 예를 들어 제가 요즘 킨볼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는 방법도 다 제 스타일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공격은 어떻게, 개인의 수비는 어떻게, 동료교수 모형으로 가르칠지, 아니면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가르칠지. 그런 것들과 학생들의 특성,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당장 오늘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체육은 재구성의 범위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본 항에서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생성’하는 실행 단계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연결하기’, ‘좋은 체육수업 만들기’, ‘수업 되돌아보기’라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을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1) 교육과정과 수업 연결하기

가) 나만의 교과서 제작

체육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과와 다르게, 체육관, 운동장 등 외부의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바깥 활동을 하는 체육수업에서 교과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잦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 나만의 교과서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축약하는 것에서 벗어나,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업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혼합하며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하고 있었다. 이협동 교사는 교과서를 모두 보거나 체육관에 두고 매일 꺼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과서에서 한 학기 동안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활동지를 함께 구성한 워크북을 제작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수업시간의 마무리에는 항상 활동지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교과서와 수업을 연결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도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한 학기 활동을 활동지로 구성해 봤어요. 쓰기, 기록 활동까지 다. 교과서 보고 발체를 해요. 교과서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날그날 신체활동을 좀 다룰 수가 있으니까 신체활동들을 하고서 자기 소감이나 배운 점, 발전된 점, 그런 거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 게 이상적인데(중략) 체육관에 보관했다가 애들이 볼펜도 다 준비해 놓고, 와서 활동하고, 가기 전에 써서 이걸 내고 갈 수 있어요. 먼저 내면 좀 한 이삼 분 일찍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후딱 해서 매일매일 써야 할 분량을 쓰고. 이렇게 교과서와 수업 방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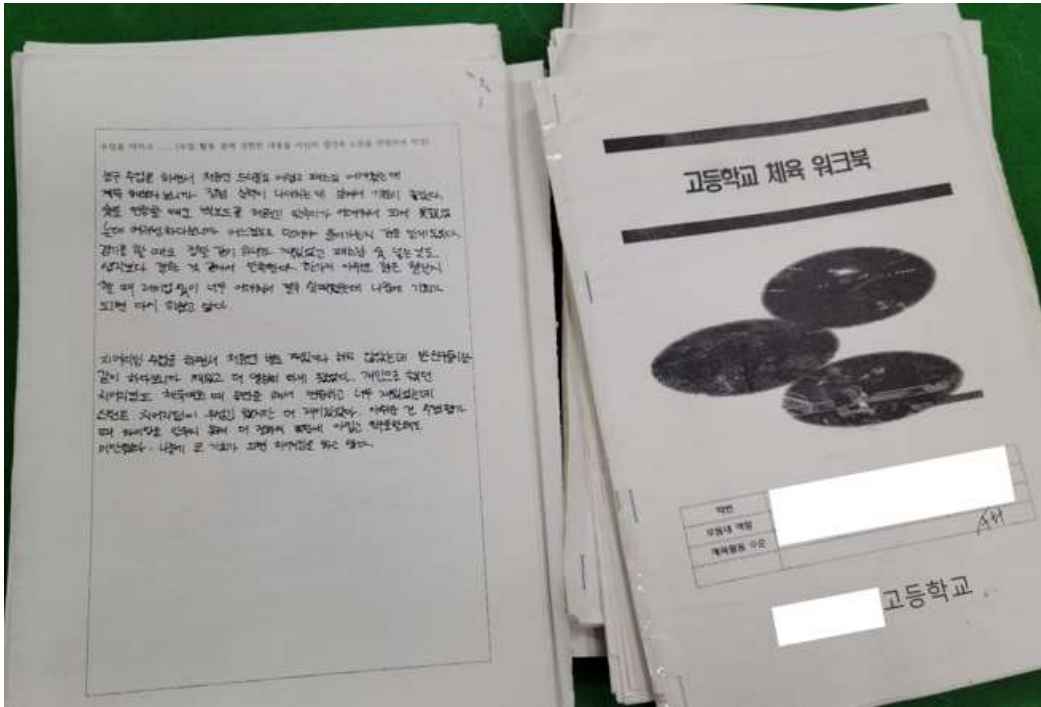
또한, 나만의 교과서 제작은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기반으로 하였으며, 교과서라는 교육과정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유인성 교사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에 나온 여러 자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교과서의 자료는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하여 만든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유용하다고도 이야기하였다.

교과서에 있는 여러 자료를 내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크북을 만들 때에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패턴들이 있잖아요. 여러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거기에서 좋은 부분들만 캐치해서 저만의 것을 만들면서 활용하는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의 워크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이 어떻게 연결하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워크북은 교과 영역 및 주제에 따라 제시되었다. 또한, 모둠 역할, 신체활동 종목 관련 이론적 내용과 평가 내용 및 조건, 그리고 시 쓰기, 영상과 같은 간접체험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농구라는 영역을 가르칠 때는 종목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다른 영역과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연계한 체크리스트 및 서술형 학습지도 제시함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해 수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유인성 교사의 워크북



고등학교 체육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농구 수업을 했어요. 표지에는 학번 성명을 쓰고, 모둠의 역할도 있어요. 이 학생은 시설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중에 경험한 것이라고 보면 슛, 막기, 골 이렇게. 도전 챌린지라고 농구를 가지고 하기도 했거든요. 우선은 경쟁 활동에 관련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건이라고 해서 평가 내용이에요.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네가 그려서 하는 건데, 여기 경쟁활동 안에 있는 농구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조금씩.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심판법도 있고. 거기 안에 내용들에 대한 분석, 농구에 대한 시 쓰기, 관람. 영상을 패들릿에 올려주고, 영상에 관련된 줄거리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쓰고요. 이건 서술형이라고 해서 농구 경기에서 봤을 때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쪽 쓰게 되어 있고, 여기 안전과 관련된 상해의 대처방법들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지, 에피소드 같은 걸 두 개 정도 쓰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건 경기 예절, 인성과 관련된 자기주도적인 것과 관련된 체크리스트. 그리고 뒤에는 게임 분석 하는 것이고. 이건 체육수업 시간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리게 하는 건데, 농구에 대한 것들, 치어리딩에 대한 그림. 잘 그린 애들도 있고, 못 그린 애들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리라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소감 두 줄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워크북 보조 자료예요. 이 정도로 한 학기에 하나씩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나) 교육과정을 활용한 생활기록부 작성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는 1996학년도 도입된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김정미, 조흥순, 2020). 최근에는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평가에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정성적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며(홍진우, 2021) 생활기록부 작성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공식적 문서이자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큰 도움을 주는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을 근거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일명 ‘교수평기’를 강조하며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교육환경 속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사 자신만의 새로운 수업을 만들고, 수업에 따라 다른 평가와 기록을 맞춰내는 과정을 의미한다(우치갑 외, 2018).

하민음 교사는 교육과정, 수업, 그리고 기록까지의 연계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을 알아야 수업이 보이고, 수업을 알아야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맞춘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민음 교사는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고등학교는 수업을 잘하나 못하나 뿐만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진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중략) 교육과정을 알아야 수업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수업을 알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멘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임열정 교사는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통해 수업을 연결하고, 수업에 맞추어 생활기록부를 기록해준다는 면에서 ‘교수평기 일체화’가 자신의 수업에 있어 남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각론적인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이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몇 개 뽑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경험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 수업이 좀 다른거라고 하면 교수평기 일체화. 그래서 생기부 기록을 굉장히 아이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살려서 넣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전배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교과 세특’, 즉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뽑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관찰하여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도 필요한 과정이며, 학생들의 요구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구참여자: 교과세특 쓸 때.

연구자: 성취수준이요?

연구참여자: 성취수준이랑 교육과정의 몇가지 역량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생활기록부 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죠. 애들이 정서적 경험에서 자기 역량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라든가, 자기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런 용어로 변환해서 써줘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애들아, 사회관계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희들이 팀 활동할 때 이리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은 유심히 본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부분에 주목해라. (중략) 교과 세특과 대학 입시가 연관이 되고, 아이들의 이해와 요구도 그런 거니까 매칭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대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교-수-평-기 일체화’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실행과 생활기록부 작성을 연결짓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교육과정 실천의 다짐

아무리 훌륭한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에 의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과정은 무용지물이 된다. 체육

과 교육과정이라는 이론과 문서를 실행에 옮기는 주체는 교사이다. 교육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실천하는 다짐의 자세 또한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운영 지침 등 국가에서는 학교 및 교사단위의 수업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하민음 교사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 목표, 성취기준 등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교사수준에서 재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은 교육과정 실행의 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알기 싫어서, 그리고 어려워서 덮고 자신만의 수업을 가르친다면 시대적인 변화와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목표가 하나도 반영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살짝 최근에 느낀 건 교과서가 있고, 교육과정 해설서, 지침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창의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싶어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덮고, 교육과정도 덮고, 알기 싫고 어려워서 덮고, 그냥 자기만의 수업과 경험, 임용교사 치기 전 내가 배워왔던 걸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이 아니었나 그냥. 그러면 시대적인 변화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목표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지침에는 분명히 성취수준이나 도달목표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와 이협동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에 맞추어 나만의 수업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교과 영역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일 년 동안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하라는 거라서.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재구성해서 내 수업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하는 것을 좀 추진하는 중이에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가장 크게 지금 건도경표안 5개 영역이 있고, 3개 학년 모두에 챙겨주면 좋을 텐데, 가르치고 나면 그게 다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학년의 평가계획 안에 그래도 일 년 안에 좀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2) 좋은 체육 수업 실천하기

가) 최고의 학습 환경 제공

교사가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의 배움을 다르게 한다. 최고의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체육수업을 만들어가는 모습 또한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과제 수행 공간과 용·기구와 같이 물리적인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배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전배려 교사는 좋은 체육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꾸리고,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고 깊게 제공하는 것은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역량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환경을 잘 꾸려내는 것, 이것이 학생들이 자기 과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차별되는 것 같고. 나는 어쨌든 간에,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좀 더 넓고 깊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중략)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을 잡아보고, 던져보고, 또는 발로 차보고, 싸보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될 때 비로소 내 신체활동에 다가가고 정서적 경험도 다양해지는 건데.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생각을 축구 수업 예시로도 설명해 주었다. 만약 한 공간에서 9:9로 축구 경기를 한다면 게임을 주도하는 일부의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게임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업공간에 있는 네트와 골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장을 두 개로 만들고, 경기 인원을 5:5로 줄이는 것과 같이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학생에게 학습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축구볼을 해. 그런데 공간도 되게 작게 하고, 한 9명이 들어가서 하는거예요. 재네가 누가 누가 공을 잡나. 공을 3명만 잡아요, 3명이. 하나, 둘, 셋. 애네만 자꾸 공을 잡고 나머지 여섯 명은 그냥 허수아비. 왜 저렇게 할까, 네트도 골망도 네 개인데. 경기장도 오히려 두 개로 만들고 들어가는 인원을 다섯 명 정도로 줄이든가. 그런 측면에서 학습환경을 최적화 시켰다면, 두 개의 경기장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서도 세명이 공을 가졌다면 여기 다른 경기장에서도 세 명이 공을 가질 거 아냐. 그럼 양쪽 합치면 12명이잖아.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용·기구를 준비하는 것도 체육수업의 수업환경 구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다. 이협동 교사는 축구공 세 개보다는 열 개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며, 이렇게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환경을 확보하는 것 또한 교사의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제가 용·기구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가장 능력 있는 교사는 용 기구가 없으면 그게 학교에 생기도록 다양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겠죠. (중략) 축구공 세 개 가지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축구공 열 개 가지고 다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가 좋잖아요. 구상한 걸 하려면 결국 용·기구나 수업환경이 구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수업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나) 유연한 수업 진행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 운동기능, 체력, 성차, 학습 유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계획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활동 내용, 과제, 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목표 달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교육부, 2015b). 연구참여자들은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수업 방법, 수업 용·기구,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성취를 높이고 있었다.

우선,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남미소 교사는 학습수준과 흥미가 다른 학생들로 인해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팀 티칭으로 전환했던 경험을 설명해 주었다.

1, 2단계도 못하는 학생들을 챙기고 나머지는 연습시키니까 진행이 안되죠. 애들 저 쪽 가서 재미없으니까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팀 티칭으로 진행을 했어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창작활동을 하며 너무 많은 창작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은 교사가 미리 제공하는 또 다른 수업 방법을 선택하였다. 학생들에게 창작활동이 너무 광범위한 자율성이 제공되면 어려워했기에, 규정, 자율, 창작으로 세분화하여 교사가 제시하는 표현 활동과 학생들이 창작할 수 있는 표현 활동을 혼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저희가 창작활동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해요. '10가지 해서, 창작해서, 음악 맞춰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창작적인 것이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내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정 종목은 제가 같이 하고, 자율 종목, 창작 종목은 아이들이 어떠한 경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안에서 해야지.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아이들이 찾아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할 수 있어서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다음으로, 평가 방법을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형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민음 교사는 자유투를 평가할 때에도 몇 개가 지금 마주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준일지,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조절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설명하였다.

농구 자유투로 10개 던져서 7개 이상 넣는 걸 평가 기준으로 잡으면 한반에 1명, A도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잡거나, 너무 낮은 기준으로 잡는 것처럼 조절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이고, 학생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늘 예민해야 할 부분 같아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조행복 교사는 자유투를 평가할 때, 학생들의 특징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평가 방법을 변경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자유투를 할 때, 백 보드를 맞추면 더 잘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맞추어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는 숫은 1점을 더 인정한다고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학생들의 평가를 재미있게 바꾸는 것 또한 교사의 전문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애들이 백보드를 계속 맞추라고 하거든요. 백 보드 사각형을 맞추라고. 그런데 애들이 안 해. 그러면 백 보드 맞고 들어가는 숫이면 1점을 2점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들은 척만 척하더니, 바꾸니까 막 백보드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애들의 평가를 재미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수업 용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전배려 교사는 허들을 무서워하거나, 잘 넘지 못하는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허들의 높이를 다양하게 바꾸고, 부드러운 장애물로 변경했던 경험을 소개해 주었다.

허들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높이가 이 정도면 충분하고, 어떤 학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높이를 나누고, 장애물을 소프트한 것으로 바꾸거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거죠.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다) 디지털 기기 활용

Armour 외(2020)는 최근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기술과 장비의 사용, 광범위해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온라인 콘텐츠로의 접근에 능숙하며, 이러한 부분은 체육교육의 현장에도 필연적으로 요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 체육교육과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체육 콘텐츠 등에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형수, 2021; 문경남, 2017; 박경석, 2020).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휴대용 전자기기,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협동 교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수업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자신

의 신체활동을 직접 촬영하면 애플리케이션에는 신체활동 수행 여부가 표시되었다. 학생들은 이를 피드백 삼아 자세를 수정하였고, 이협동 교사는 결괏값으로 활동 여부를 평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지금 이 학기 때 같이 공유하는 건 체력운동을 'oN 체육' 이라는 앱으로 충주 선생님들 6명 같이 실천해 보기로 했거든요. 방학 때 테스트도 해보고. 수업시간에 핸드폰 다 가져와라, 그리고 on 체육 과제를 다 주면 카메라 열고 촬영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결괏값이 다 나오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평가 기록을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래프로 변환하여 동기부여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기록을 즉각적으로, 원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학생들의 팀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이패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번 연수에서 썼던 게 성장기록이라고. 줄넘기를 예시로 했었어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구글이랑 시트에 관심이 많아서, 차트같은 걸 잘 만들었어요. 입력하면 체육관에 설치한 TV에 다 미러링해서 화면에 보여요. 그럼 아이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다 보고, 하라고 강요를 안 해도 그걸 보면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보고, 색깔과 그래프로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팀별로 더 열심히. 아까 예시로 줄넘기 수행평가를 7단계라고 하면, 처음부터 7단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이라면 전 줄넘기 이제 안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쉽고, 이미 다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학생 때문에 똑같이 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줘요, 다들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디지털에 더 익숙하고,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의견 공유도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영상을 패들릿에 올려주고, 영상에 관련된 줄거리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쓰고요. (중략) 옛날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달라요. 쓰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쓰는 걸 안하고,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패들릿을 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라) 교과 외 활동과의 연계

연구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실행은 체육 교과수업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 외 활동과도 연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학교의 체육 행사까지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배움을 넓혔던 경험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임열정 교사는 배구 종목을 예시로 들어 이야기하였다. 수업에서 배구를 가르칠 때 기초적인 기능 다음으로 모듬별 경기를 연계하였으며, 이후에는 학급대항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까지 넓혀갔다고 설명하였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의 스포츠 문화까지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배움이 수업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의 문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었다.

배구를 하면 기초적인 기능 수행을 하고, 그리고 모듬별 경기로 가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저는 학급대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학급대항을 점심에. 학교스포츠클럽 배구축제. 그걸 토너먼트나 풀리그를 돌려요. 학급에서 체육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학급끼리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중략) 제일 큰 특징은 한 종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싹 끝내지 않고 반드시 기초부터 해서 경기까지 연계시킨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축제화 시킨다는 것. 학교의 스포츠 문화로 연계시킨다는 것.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탁구 종목을 예시로 들었으며, 임열정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급에서 단식 경기까지 배운 뒤, 전교대회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탁구는 저렇게 했어요. 탁구는 반에서 수행평가를 단식을 다해서 남학생 풀리그, 여학생 풀리그로. 애들이 올라오면 개네 가지고 전교대회를 또 진행하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체육대회의 경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육대회 관련 영상 제작 등의 활동과 연계시킨 경험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체육대회 같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 4분짜리 전교생 활동을 구성할 때, 창체시간에 준비 시간을 정해 놓고 체육관을 해서 과제카드를 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거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교과 외 활동까지 체육수업을 연계시킴으로써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행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학교수준 교육과정까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3) 수업 되돌아보기

연구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수업 되돌아보기’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업 평가하기’, ‘반성적 수업 실천하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업 평가하기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통적인 목표와 내용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활용하며 나의 수업을 되돌고 평가하였다. 또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평가의 잣대로써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정성 교사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계획이 구성되었는지,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더욱 활용한 경험을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 학습 계획이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니까 조금 더 찾아보고,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 또한 수업 후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읽으며 자신의 수업에서 놓친 부분을 깨달으며 되돌아본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반성하거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기에 필요함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봤을 때, 보고 '아 맞아, 이걸 내가 놓쳤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적인 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가끔 반성을 하기도 하고, 길을 찾기도 하고.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업과 교육철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었다. 임열정 교사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자신의 교육철학과 수업의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큰 잘못은 안 하고 있네'와 같이 생각하며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활용하기도 함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 내용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교육과정을 보고 아, 내가 큰 잘못은 안 하고 있네를 파악하고 내 수업을 긍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활용하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자신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을 성취기준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발전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협동 교사는 '나의 수업이 성취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성취기준에 맞추어 나의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성취기준을 보고서 여기서 내가 한 활동을 돌아보고, 내가 수업하고 계획한 것을 성취기준을 읽어봤을 때 내가 납득이 되는지. 협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복적인 과제를 구상한다 하면 축구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인 과제를 반복해서 먼저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도전 활동에 도전영역에 적합한 활동이구나. 그러면 이걸 교육과정 기준에 이걸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자신의 수업을 비교하고 반성하는 평가 과정은 더욱 나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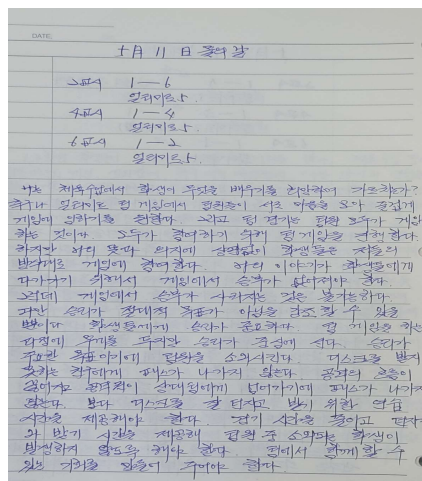
나) 반성적 수업하기

교사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자신의 수업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 예를 들어 수업 목표, 교수학습 활동, 학생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김순희, 2009). 즉, 수업에 대한 성찰적 실천이 기반이 되어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배려 교사는 교직 생활 33년 동안 수업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며 반성적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전배려 교사는 매일 수업일기를 작성하며 자신의 수업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 수업내용, 학생들의 반응, 이번 수업에 대한 반성과 다음 수업에 대한 계획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자기 수업을 돌아보는 일을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그림 3] 전배려 교사의 수업일기



이성실 교사는 좋은 체육수업이 곧 반성적 수업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수업 철학을 설명하였다. 지금의 수업이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바뀌는 아이들과 환경 속에서 내일의 수업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이번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좋은 체육수업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수업 철학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요.

연구참여자: 약간,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성적 수업이요. 좋은 체육수업이란 내가 지금 했던 수업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제 했던 수업보다 조금 더 발전된 수업. 그럼 또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아이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의 수업을 조금 더 나은 수업으로 하기 위해 조금씩 더 보완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좋은 수업을 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적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여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이후의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정성 교사는 자신의 수업과 평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다음 학기에 반영하고, 조행복 교사는 매시간 자신의 수업이 더 나을 수는 없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유인성 교사 또한 자신의 수업과 평가 내용을 되돌아보며 평가계획서를 수정하고 매번 새로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내 평가 과정물을 보면서 수업 내용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활동이 어땠는지 펼쳐보고, 어떤 게 더 부족했는지, 그래서 학기당 그런 걸 반성적 절차에 걸쳐서 다음 학기에 반영하는 것이 좋죠.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제가 농구를 막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이 농구를 잘해. 그게 절 돌아보게 해요. 이게 다인가? 못하는 애들은?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책을 한번 쭉볼까? 사이트를 한번 보여줄까? 링크를?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이전에는 레이 업 숫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레이 업 숫도 넣었어요. 초가 미스였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 초가 40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건가, 너무 쉽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통과는 안 됐는데, 연습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초로 통과의 유무를 설정하긴 했지만, 4개 통과 안되고, 1개 통과하고 초만 통과했다, 그러면 다 통과가 되는 게 미스였더라고요.

연구자: 아, 그럴 수 있죠.

연구참여자: (웃음)그게 이번 수업에서 또 배운 점이에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임열정 교사는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였다. 학기 말 회식을 하며 난상토론 방식으로 지난 학기 수업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고 다음 학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회식하러 가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난상토론을 해요. 이 학기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가 좀 아쉬웠고, 개선할 게 뭐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 학기계획을 해 보자.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반성적 수업을 실천하였다. ‘역량’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걱정하며 나만의 교과서인 워크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패들릿’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 받아보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재구성할 때 역량을 어떻게 드러나게 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워크북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워크북이 피드백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제가 이건 이런 역량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진짜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건가, 확인을 잘 못하잖아요. 중간중간 퀴즈도 내고, 패들릿에 올리게 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패들릿이나 워크북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한 것들에 대한 반응을 피드백으로 보는 편이에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반성적 수업 실천은 더욱 나은 수업을 위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반복적인 질문과도 같았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나의 수업은 괜찮았는가?’,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면 ‘이번 학기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질문하며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수업을 되돌아보는 것이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2. 고등학교 체육교사 교육과정 실행에의 영향요인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는 그 중심에 위치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점차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재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교사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교사는 교실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 교육과정을 실행하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경진, 2006). 본 절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사 개인 및 교사 개인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교사 개인의 경험 및 사고방식), 관계적 요인(교사의 타인, 또는 단체와 가지는 관계), 환경적 요인(교사의 물리적, 사회적 주변 환경), 교과적 요인(고등학교 체육교과의 특징)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란, 교사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로서 교사의 가치관, 철학, 교육적 경험 등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 요인으로 ‘1) 교육과정 관련 경험’과 ‘2) 교사의 체육수업 철학’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 교육과정 관련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력 8년 이상의 현직 고등학교 체육교사 12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오랫동안 체육수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체육교사로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 힘써온 교사들이다. 특히, 체육수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참여한 교과서, 교육과정 집필, 교육과정 관련 연수 참여 등의 경험이 매우 다양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관련 경험들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 교육과정 개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총 9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주체는 크게 개발진, 심의진, 협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체의 협의와 소통 후 합의점을 도출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이때,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진으로서의 참여, 공청회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이옥선, 2013).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집필진과 협의진으로서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교육과정 선도 교사로서 활동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깊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이협동 교사는 2015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도 단위 교육과정 개발진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교과의 체계성, 개연성에 대한 고민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면서도 ‘체육은 곧 종목’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체육에서 학습의 요소는 무엇인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게 체육이니까 종목을 배운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의 신체활동의 학습의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개연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저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굉장히 체육계에서는 난제예요. 워낙 많은 종목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답습해왔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중략)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개선하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2007년도 교육과정 협의진, 2009년도 교육과정 검토진, 2015년도 교육과정 토론진, 현재 2022년도에는 교육과정 검토진으로 활동하며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하였다. 협의진으로서 교육과정 강의와 연수 경험, 현장 적용성 검토, 토론진으로서 현장의 의견 전달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07 바뀔 때는 제가 협의진이었기 때문에 도전활동, 신체활동 가치중심 관련 사례들을 지역별로 돌아다니며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09부터 15, 22 현재까지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연수도 참여하고, 거기 퍼실리에이터, 토론자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진은 실제로 많은 부분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 적용하기 위한 사례 같은 것들을 교육과정 만들 때 같이 많이 참여하고요, 검토진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장 적용성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현장 적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덜 부각해야 하고. 현장 적용성이 다소 떨어지니 이런 것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것들을 토론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며 기존에는 교육과정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교육과정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중략) 그전에는 그냥 그런 거(교육과정)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이번 2022 교육과정 토론진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과정 협의진으로서 활동하며 과거에는 교육과정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준비하고, 만들고, 검토하고, 알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교사로서 쉽게 판단했던 것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새로 바뀐다면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

운 것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저의 유의미한 해석대로 방향성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3자의 입장에서 들었던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그 과정에 동참하고, 의견도 내보고, 직접 부딪혀 보면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각인하게 되었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나) 교과서 집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7명에게는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었다. 또한,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체육교사들의 대화를 통해 교과서 집필 전후 각자의 수업에 있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기존의 교과서를 모두 탐색하고 교육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조행복 교사는 교과서에서 농구 부분을 집필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교과서에 있는 농구 교과서를 살펴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교과서를 집필하려면요, 교과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다 봐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좀 새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잘 안 보거든. 2015 모든 교과서, 출판사 걸 다 놓고 봐요. 내가 만약 농구에 관심 있다, 하면 농구만 다 보는 거예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는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교과서 집필을 위해 교육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교과서 집필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가까이 살펴보는 과정은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는 텍스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자료를 모으고 거기에 가장 심플하게 집필을 해야 돼. 그래서 책을 쓰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고. 일단 교과서는 무조건 교육과정이란 관련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지, 교과서도 심의를 받는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전배려 교사는 교과서 집필 후에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고, 그냥 내용만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한 수업이 가능해졌음을 말하였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육과정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좀 더 뭐랄까 유연하게 현장 교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도 교육과정에 대해 정확히 모를 때에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했었는데. (중략) 교과서 집필 이후에 교육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요.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임열정 교사 또한 교과서 집필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교과서를 쓰기 전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쓰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고. (중략) 교과서 쓰면서 교육과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교과서 집필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교과서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교과서를 쓴 계기를 통해 이성실 교사는 교과서를 수업에 쓰고자 마음이 바뀌고, 활용성 또한 높아졌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교과서를 한 2년정도 집필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쟁 쪽에 관심이 더 많은데 도전을 말다 보니까 육상, 체조, 태권도, 뭐 그런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있어 하지 않던 그런 종목들을 말다 보니

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전문서적 같은 것도 많이 빌리고. 그리고 협회에다가 전화도 많이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중략) 교과서를 하여간 잘 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나서는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교과서를 그냥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줄 한 줄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썼는 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과서를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교과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지만 제가 쓴 교과서를 제가 잘 활용하니까. 뭐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수업에 녹여 내기가 되게 좋았죠. (중략) 어쨌든간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니까. 교과서 활용도가 집필 전후 완전히 달라졌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교과서 집필 경험은 공통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수업에 활용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관련 연수

교사의 교육과정 지식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낙원 외, 2006). 현직 교사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내용,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육과정 관련 연수는 현직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정성 교사는 짧더라도 교육과정 관련 연수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때,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목적, 방향성과 같이 교육과정 개발자가 직접 개정된 철학과 방향을 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규일과 허창혁(2011)은 2007 교육과정 개정 당시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옥선(2013) 또한 짧은 시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체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의 내용을 현장 교사들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관련 소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이 다만 5~10분이라도. 왜 우리 체육 교과가 필요하며, 체육 교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교사가 스스로 생각하지. 체육 교육과정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러하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했고, 그리고 체육교과의 가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몇 분이라도 얘기하면, 요즘 유튜브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한 사람들이 하면 넌지시 라도 들으면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은 이래서 배워야 해. 어떻게 보면 체육교사에게도 철학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관련 연수가 전달 형식인 것보다는, 소통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장 교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성실 교사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평가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교육과정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평가계획을 작성하는 연수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해보고, 또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그나마 전문가한테 가서 의견,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적인 사람도 아니니까 연수하는 사람도. 그러면 또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중략) 전달 연수 형태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실기 연수에서도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조행복 교사는 실기 연수는 진행하는 사람의 수업 실패와 성공, 계획,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배드민턴연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왜 이 배드민턴을 지금 연수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지금 이게 문제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큰 트렌드는 이거고. 그러면서 그렇게 귀 동냥으로 듣는 거예요. (중략) 연수는 아무나 못하거든요, 2시간, 3시간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 사람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것, 그사람이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수가 교사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단, 연수의 방안은 소통의 방식, 실천적 방식, 그리고 실기연수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었다.

2) 교사의 체육수업 철학

교사에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개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을 이해한 후, ‘체육교사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한다(유정애, 2010). 즉,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교사의 철학이라는 렌즈를 거쳐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임열정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인생철학과 색깔이 담긴 나만의 수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선생님들이 하라는 걸 받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투입했을 때 정말 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교사가 나만의 수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색깔이 담긴,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 담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이유는 교사 개인의 성향과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때로는 교육과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어떤 입장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굉장히 참고로 하지 않냐면, 각 교사의 이런 성향과 교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맞춰서 내가 수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불편한 걸 내가 받아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 내 철학도 다른데.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실행에서 각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은 각자의 독특한 ‘렌즈’가 되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비춘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체육과의 연계’, ‘감성적 수업’, ‘간접체험활동의 강조’라는 렌즈가 비추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의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가) 평생체육과의 연계

고등학교 체육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 진출 이후에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윤주석 외, 2019).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목표에 평생체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의 철학이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임열정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한 종목을 배울 때 경기를 배운 경험이 평생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배구를 배울 때에는 스파이와 서브와 같은 중요 기능을 배우고, 경기에 참여해 선수의 경험을 가져 본다면 성인이 되어도 배구에 대한 향수와 좋은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 관람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임열정 교사는 때로는 평가에 ‘경기’를 포함 시키기도 하고, 중요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종목을 배웠으면 경기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향수와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구를 언더 오버만 한 학생들은 배구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배구에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이런 것만 했던 아이들은 수행평가도 그런 것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브와 스파이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자꾸 제한된 경험만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더 중요한 기능을 빨리 접근시켜요. 그래서 경기를 경험해서 학생들이 정말 그 종목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선수의 경험까지. 때로는 학급의 대표가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평생체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스포츠 관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 또한 학생들이 체육을 좋아하고, 학교를 벗어난 후 사회인이 되어서도 체육을 즐길 수 있겠다는 체육수업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바로 체육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학생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평생체육과의 연계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인성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이 경기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하나 정도는 평생 해볼 수 있는 스포츠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이 체육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체육을 끝나고 나서도 내가 학교라는 턱을 넘어서 사회인이 되어도 체육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중략) 고등학교는 좀 더 아이들이 하나씩은 '내가 경기도 운영해 볼 수 있고, 내가 하나 정도는 익혀서 평생 해볼 수 있는 스포츠' 같은 게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더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나가서 바로 체육 정책을 할 수 있는 입안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체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평생 체육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건강과 여가 관리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한 분야는 성인이 되었을 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 발레와 같은 종목들을 배우는 것도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중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그걸 평생체육으로 건강과 여가를 관리할 수 역량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체육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발레 기본 동작을 배웠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발레를 배워볼까?' 할 수도 있고. 등산의 준비물이나 안전을 배운 적이 있다면 '등산을 한번 해볼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나) 진선미 스포츠인 양성

경쟁적 스포츠는 ‘다대고’, 즉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를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육교사들은 ‘진선미’, 즉 기능과 심성이 고루 발달된 스포츠(최의창, 2018)를 추구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업내용 선정과 평가 계획, 수업 진행 내용을 들으며 ‘진선미’ 수업 철학이 교육과정 실행에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미소 교사는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체육에 대한 흥미와 애정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팀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 단계적인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 중요하다는 수업 철학을 지니고 있었다.

‘잘하게 되는 건 결과고, 과정을 잘하자’ 인데요. 단계별로 설정을 하고, 애들이 성공 경험을 하면 그걸 통해서 운동을 더 좋아하게 되고,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예요. 운동을 못 하거나 관심이 없던 애들도 흥미를 갖게 만들고, 팀에서 팀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전배려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적으로 바라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생각하였다. 통제받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환경에서의 수업이 미래의 민주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저는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통제받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중에 통제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민주적으로 늘 자유롭게 학습을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러이 되어서도 민주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할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체육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과 같이 스포츠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직까지도 기능적인 걸 중요히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지적인 것이나, 기능을 아무리 잘하면 뭐 해, 인지적인 부분이 없으면 내가 축구 경기를 올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그 종목의 문화적인 요소를 올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체육의 색깔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가치를 중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운동기능의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즉 직접적인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내포된 서사적 내용을 통해 창의·인성, 즉 심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간접적 체험활동을 제시하고 있다(최의창, 박정준, 2011). 간접체험활동의 예시로는 쓰기, 말하기, 탐구하기, 평가하기와 같은 활동이 있다(박재정, 2015). 간접 체험활동은 진선미 스포츠인, 즉 기능과 심성이 고루 발달한 스포츠인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수업 방법이라고 제시된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수업 철학을 투영해 간접체험활동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는 000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통합, 융합, 인문적인 것, 간접 체험활동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그때 좋았어요. (중략) '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은 스포츠를 체험하는 한 가지 방식의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죠. 그래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이거를 경험해서 다시 직접적인 걸로 연결되게 했는데, 지금은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애들은 운동을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운동을 못하는 애들.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간접 체험 활동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개네들 주변에. 음악, 노래, 그림, 만화책 등등.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조행복 교사는 간접 체험활동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 매우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의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왜 애들이 축구할 시간도 없는데 뭘 만들고, 시를 쓰고, 음악 개사를 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운동하냐?가 아니라, 그런 걸 과제로 내줄 수도 있고, 잠깐 해볼 수도 있고, 한시간 내내 축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있죠, 지금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중략)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체육수업에서 심성을 가르치는 것은 체육수업을 통해 ‘움직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마음 교사는 체육수업을 하면서도 학생의 태도를 함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른 교과와 달리 체육수업은 수업 중 태도를 가르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생활지도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체육수업이 곧 생활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업의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생활지도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디 화장실을 가거나, 애들하고 수업 중에 흥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 교과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교과는 수업시간에 생활지도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체육수업은 누가 체육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년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다) 학생 중심 수업

짧은 시간의 활동 강조의 수업, 숙달된 운동기능을 가진 소수 학생 위주로 한 수업과 같은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수업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사 중심적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생 중심 수업이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탐구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과 같이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 되는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의미한다(최원준 외, 2004).

연구참여자들은 학생 중심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학생 중심 수업을 한 가지 철학으로 여긴 채 수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인성 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역량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연구자: 교육과정 재구성에는 어떠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참여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중심, 역량중심, 배움중심 수업이 이루어져 하죠.

(유인성 교사. 사전 질문지)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 수업 설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인성 교사는 교사의 조력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배움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배움을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이 그것을 실천하면서 과정 중에 고민하고, 저희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찾아내는 것. 안내는 교사가 철저히 잘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찾아서 안내하는 학생 중심으로 하는 것.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학생 중심 수업의 한가지 방면으로서 PBL(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실천하였다. PBL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결정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며 학습할 수 있다. 교사가 지시하는 내용, 방법, 평가가 아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다.

‘선생님, 저희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키와 몸무게는 많이 커졌지만 비만은 많아졌어요. 이런 주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수업에서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저는 항상 하는 게 ‘맞춤형 건강 프로젝트’거든요. 애들은 PAPS를 1학기에 하고 유연성이 가장 좋은 학생, 가장 낮은 학생, 순발력이 가장 높은 학생, 가장 낮은 학생이 있어요. 그럼 유연성 팀, 심폐지구력 팀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팀별로 가장 약한 체력을 한 등급씩 올리도록 하는 걸 프로젝트 주제로 제가 줄 수 있어요. 또는 ‘애들아, 너네가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봐.’ 하면 학생들은 ‘우리는 환경으로, 우리는 코로나로, 우리는 체력으로, 우리는 힐링으로 주제 잡을래요’하는거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는 학생 중심 수업이 중요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율성’을 중시하였다. 학생이 수업의 결정자가 되며, 체육수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인의 삶이자 결정임을 잊지 않으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애들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이 체육수업 자체도, 이거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 각각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래서 저는 자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나. 관계적 요인

관계적 요인이란, 교사의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요인들로서 인간적 관계, 공동체 등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1) 동료 교사와의 관계’와 ‘2)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동료 교사와의 관계

가) 긍정적 관계 : “서로 발전적이죠.”

동료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아이디어가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과정, 자신의 아이디어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 협력관계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서경혜, 2009). 또한, 동료 교사와의 상호교섭은 좋은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제성준, 윤현수, 2015). 연구 참여자들 또한 동료 교사와 함께 수업 실천을 교류하고, 조율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동료 교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수업에 변화가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협동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조율하며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함께 발전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것은 ‘아닌 것’이라 치부한다면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유연한 자세로 함께 바뀌어 가는 방법을 선택하며 체육수업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디에 빠져서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사실 현장은 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게, 서로 나도 그쪽으로 따라서 좀 바꿔주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줘야 서로 이제 이 이루어지는 건 서로 발전적일 수가 있는데.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의 모임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었을 때, 함께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임열정 교사는 ‘핵심역량’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에게 함께 수업에서 가르칠 것을 제시하였고, 이를 PAPS를 통해 학교에서 함께 추구할 수 있었던 경험을 설명하였다. PAPS는 간혹 이벤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료 교사와의 아이디어와 협동을 통해 임열정 교사의 학교에서는 PAPS를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건강관리 역량’과 연계하여, 한 달 이상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장기적인 활동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참여자: 제가 핵심역량을 얘기했을 때 동 교과 선생님들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PAPS를 어떤 분은 일회성으로 하고,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 방학해서 하루 날 잡아서 체육대회처럼 하고. 다 달라요 다 경험이 다 다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네 명이 합의된 뭔가 틀을 만들자 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를 하지 말고 한 달 이상의 훈련과 연습,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아이들이 건강이 뭔지 체력이 뭔지를 느끼게 하고 체력운동을 시키고. 이걸 PAPS와 연계해서 측정하고. 이걸 1차로 끝내지 않고 한달 정도 격차를 두고 2차를 또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대부분 같이 잘했어요.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선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수업을 발전시켰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학생들의 운동능력 수준을 항상 높게 잡고 가르치는 편이었으나, 선배 교사의 조언을 계기로 이후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이다.

제가 운동선수를 했으니까, 운동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수준을 항상 높게 잡았어요. 그런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랑 운동을 같이 했던 선배교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운동수준이 너무 높아.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했어요. 이제 그게 제가 바라보는 일상이 된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의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수업의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협동 교사는 동료 교사와 대화하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앱의 활용, 수업 방식을 토론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보편화 된 도구를 활용하든지 앱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 선생님과 쉽게 같이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의 설득과 조율, 협동, 그리고 충고 등의 긍정적 교류는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과정 실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부정적 관계 : “내부의 적”

동료 교사와의 발전적 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교육과정 실행 및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김평국(2005)은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의 실태를 관찰할 때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수준의 재구성에 머무르는 요인 중 ‘동료 교사와의 합의 도출 곤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현석과 방기용(2012)은 교육과정 재구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동료 교사의 비판을 제시하였다. 남미소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동료 교사에게 의한 반대를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의견이 맞지 않고,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동료 교사를 ‘내부의 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수업 준비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던 것이다.

내부의 적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뭘 하려고만 해도 '안 돼, 야 편하게 해. 뭘 그렇게 하려고 하나.' 이런 말을 사실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중략) 어떤 분은 그냥 편하게 한 종목 넣고, 하나는 원래 측정하니까 왕복오래달리기 해도 되잖아. 아니면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끝내.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동료 교사와의 의견 충돌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따라 수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던 이성실 교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성실 교사는 이론 수업에 대한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활동지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하고, 보강을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같은 교과에 들어가는 동료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다르죠. 그 선생님은 그거 굳이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뭘 맞추냐. 그러면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어찌됐든 약법도 법이라고 맞추라고 하면 아주 작게라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그걸 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혹서기나 혹한기, 아니면 최근 같은 장마 때 교실 수업할 때 애들이랑 활동 좀 해라. 내가 활동지를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내가 보강을 들어가서라도.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텐데도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평가를 3월에 끝내고, 나머지 학기는 ‘아나공’ 수업을 하는 동료 교사를 만나며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함을 되새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동료 교사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교육과정 실행을 되돌아보는 경험이 되기도 한 것이다.

평가를 3월에 끝내요. 3월 끝나면 4, 5, 6, 7에 애들 아나공 시키고, 본인은 옆에 텃밭에서 식물 키우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실천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는 함께 근무하고 있던 주변 모두가 ‘아나공’의 성향이었고, 주변에 의해 자신의 교육과정 실행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 실행이 동료 교사와 환경에 의해 파생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다.

같이 근무하는 교사들의 성향들. 아나공이 세 명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같은 학년에. 맞잖아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모두 공통적으로 ‘내부의 적’이라 여겨지는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업무가 늘어나거나, 동료 교사의 태도로 인해 자신의 수업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등 교육과정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교사 개인은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가지며, 실천적 지식은 교육과정 실행으로 드러난다(김두정, 2009). 최근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성이 인정받으며 교사들은 학교 안팎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매우 많이 접할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거나,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조기희, 2015).

교사학습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역 내 교사학습공동체, 교과 중심 교사학습공동체, 다양한 교과를 아우르는 특정 주제 중심 교사학습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연구 참여 교사들이 참여하며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가)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 ‘나)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가)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는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곳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학습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회, 수업 발표 사례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배우고, 함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교육과정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저는 우선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회를 어디든지 간에. 연구회에서 하는 수업 사례 발표나 이런 곳에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곳에 가야지 교육과정을 근거로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또한 교육과정 관련 소통의 장이 되었다. 유인성 교사는 융합 교과와 블렌디드 관련 교사학습공동체를 직접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성화된 수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장용규, 김동식, 2022).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교과의 융합뿐만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의 융합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교내에서는 타 교과와 함께 융합 교과 관련 공동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있는 건 제가 관리를 하긴 해요. 운영하는 전학공(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이름은 '브렌디드 코인'이라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타 교과와의 교류는 체육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임전문 교사는 학교 밖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육과정 총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있다고 말하였다.

내가 체육 쪽에서는 교학공을 안하고, '미래 학교 같은 다른 과목이랑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지.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지역 내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에 8년 동안 참여하고 있다.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PBL(Project-based Learning)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교사학습공동체 중에서도 최근에는 체육수업에서 활용하기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PBL에 참여하고 있었다. PBL 수업이란 주제 중심 수업을 의미하며, 최근 수업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어, 체육, 과학 등 여러 과목의 융합 수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제가 하고있는 활동 중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수업 나눔 교사단이라고 교원 학습공동체가 있어요.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PBL, 배움의 공동체같은 모임으로 6개가 있어요, 전과목에서 관심 있는 분야 6개를 열어두고 1년씩 개편이 되는 공동체인데요. 체육은 다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학공에 들어갔고요. 이런 PBL(프로젝트 중심 배움), 주제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코로나라면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체육적으로 접근하고, 국어 쪽에서 접근해 보자. 주제는 학생들이 만들 수도 있고 교사가 던져줄 수도 있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유의 장이자, 창의적인 수업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

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 또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내 교과협의회, 학교 밖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체육교과 교사학습공동체, 수업 나눔 연수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우선, 가장 전통적인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내 교과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주기적인 협의와 교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생성해 나가는 교사학습공동체인 것이다. 학교 내 교과협의회에서는 수업 장소, 수업내용, 수업 방법까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수업 장소 선정, 그다음에 수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것,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실행을 했을 때 내용이 충실하게 잘 구성되어서 할지에 대한 동 교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간의 의견 나눔이 교학공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어떠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계획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는 함께 수업을 나눔하고 반성하며 더욱 나은 교육과정 실행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는 영역형 활동을 통해 팀 활동이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자,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 둘만의 공유가 아니에요. 체육선생님이 4명이잖아요. 내가 나가서 수업을 하면 안 보는 듯 하지만 또 수업을 저렇게 하기도 하는구나, 나도 다음번에 그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봐야겠다 보고. (중략) 이렇게 우리 1학년이 바꿨더니 2, 3학년도 그거 좋네요, 하면서 바뀌고. 그렇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동교과 선생님들과의 수업 나눔과 연수를 통해 직접 해보지 못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은 평가, 수업내용을 접하게 된 긍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 간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연수나, 비대면 연수든 다양한 체육과 연수를 많이 참여하면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을 볼 수 있잖아요. 저글링 연수를 2019년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로도 수업도 평가도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저글링 연수를 들었던 걸 기반으로 연수를 평가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길, 독서처럼, 체육수업을 하는데 그 많은 건도경표안과 뉴스포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 나눔을 자주 가는 거예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교과 교사학습공동체는 여러 선생님과 수업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교육과정을 주제로 모인 교사학습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체육교사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개정 교육과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모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지역이잖아. 우리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했고 이게 좋아요, 얘기하면서 교류할 수 있지. (중략) 연구회에서도 얘기하고. 겨울 스키장이나 연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교육과정에 관련한 얘기도 하고.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교사들이 동아리를 만들든지, OOOO(여자 체육교사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평일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개정 교육과정 얘기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 해봐요, 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운영진에서. 그럼 거기에서 고민해보고, 우리가 농구수업을 개정 교육과정서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체육수업 연구 공동체는 지식 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정성 교사는 체육수업을 위해 모인 공동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종종 얻기도 하며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업 연구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게 된 게 체육수업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10년 만에 연락을 드려도 흔쾌히 필요한 자료도 주시고,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중략) 업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업 공동체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연수와 수업 나눔 또한 수업 발전을 위한 교과 내 교사들의 교류라는 점에서 큰 범주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민음 교사는 수업 나눔과 연수를 통해 저글링이라는 새로운 수업 내용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교사들 간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율연수나, 비대면 연수든 다양한 체육과 연수를 많이 참여하면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을 볼 수 있잖아요. 저글링 연수를 2019년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로도 수업도 평가도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저글링 연수를 들었던 걸 기반으로 연수를 평가 계획을 짰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다양하게 형성된 교과 내 교사학습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수업내용의 계획, 나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배움과 반성까지 가능하게 만든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란, 교사를 둘러싼 주변 상황, 조건에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1) 물리적 환경'과 '2) 사회적 환경'을 찾아낼 수 있었다.

1) 물리적 환경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물리적 환경이란 교육과정 실행이 일어나는 교사, 학생을 둘러싼 교실, 학생 수와 같은 시·공간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체육 시설 확보의 문제’, ‘축구공 세 개 보다는 열 개’, ‘고등학교 체육 교과의 부족한 시수’ 세 가지를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가) 체육 시설 확보의 문제

비 오면 대책 없는 운동장, 체육관이 없는 학교, 학교 규모에 비해 좁은 운동장은 체육수업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체육 교과는 학교 시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급인원과 시설 부족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김평국, 2004).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과 운영 규정에 의해 학교의 운동장 설치가 탄력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 부지 부족의 이유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정진욱 외, 2010). 이성실 교사는 서울 시내에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아직 있음을 지적하며, 수업에서 축구를 못 하는 것처럼 수업내용 선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특징이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 체육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이 없으면 수업을 어떻게, 축구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의 유무에 따라 선생님들이 수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체육관의 유무는 수업내용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영과 같이 특정 시설이 필요한 종목의 경우에도 시설의 유무에 의해 수업이 결정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시설에 체육관도 없고 하니까.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은 선택할 수 없어. 아, 그렇다면 나는 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수영하라고 했다고, 학교에서 수영장 만들어서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체육관과 운동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 학급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시간에 네 개의 학급이 한 공간에 밀집한 적도 있으며, 한 시간에 최대 두 개의 학급으로 조절하였음에도 불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운동장과 이런 환경들, 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저희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13학급이라. 한 번에 4개 학급이 수업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수업하기가 너무 힘든거야. 저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체육관이 크니까 그나마 두 반이 되는데. 웬만한 수업은 두 반이 수업하면 안 들리고 불편하거든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 또한 4개 학급이 동시에 체육관을 사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동료 선생님과 체육관 사용 기간을 조율하고, 운동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바르게 걷기’라는 수업내용을 선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강당을 함께 써야 하다 보니, 최대 2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한쪽은 탁구, 한쪽은 농구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큰 학교는 4개 학급이 같이 하기도 했는데, 2개 학급만 해도 목소리가 커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1학년 농구일 때 제가 바르게 걷기로 나가고, 제가 들어올 때 다른 선생님이 또 나가시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운동장과 체육관 수업시간을 조율하고, 시간표상 수업시

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각자의 수업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였다. 조행복 교사는 체육관에 여러 학급이 들어가면 수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기별로 한 학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표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체육관은 수업계 선생님한테 2학기 때 배구수업 하는데, 바로 개학하자마자 시합을 할 건데. 2학기 때 수업은 3학년이 한 시간도 안 겹치게 해달라, 한 반씩만 들어간다. 1, 2학년은 기다려라, 일단 3학년부터 한다. 그렇게 해야 수업이 돼요. 두 반 들어가고, 세 반 들어가고, 그럼 개판이죠.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나) 축구공 세 개보다는 열 개

유창완(2015)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체육 교과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수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체육수업 환경이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용·기구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좋은 체육수업을 위한 공간과 용·기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선, 이협동 교사는 체육수업을 위해 적절한 수업 교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축구공 세 개보다는 열 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더욱 큰 학습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협동 교사는 스크린 골프 기계, 많은 골프채, 프로젝션과 같은 다양한 용·기구를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수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업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최근에 저희 스크린 골프 기계를 설치했구요, 그 다음에 골프채도 1인 1개씩 쓸 수 있게, 그다음에 70인치 대형 프로젝션도 만들고. 인터넷 선도 체육관에 다 놓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중략) 축구공 세 개 가지고 추구하는 것보다는 축구공 열 개 가지고 다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가 좋잖아요. 구상한 걸 하려면 결국 용·기구나 수업환경이 구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적은 예산으로 원하는 수업내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조행복 교사는 이제 학교 내 여러 예산을 연결하여 체육 교구를 구매하였다. 다양한 명목으로 축구볼, 플로어 볼과 같은 용·기구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돈이야 없죠. 돈이 2백 밖에 없는데 무슨 축구볼 사고 하겠어요. (중략) 정서순화, 사회성 회복, 학교폭력 예방 등등의 이름으로 예산이 많이 온다. 신청해라. 글을 써라.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때 계획서 엄청 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서는 30분만에 그냥 써요. 커피 한잔하고 30분 딱 하면 나와요 3, 4장은 예산, 기대효과까지 딱. 그러면 선정되었습니다, 200도 같이. 그럼 그걸로 플로어볼 세트까지 딱.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다) 고등학교 체육 교과목의 부족한 시수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수는 체육 교과 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4시간이며, 매 학기 모두 편성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진연경, 유정애, 2015). 고등학교 체육 교과 시간은 연간 10단위, 매 학기 편성이다(교육부, 2015b). 전문 교과를 제외한 체육 일반 선택교과 및 진로 선택교과는 1, 2, 3학년 순서로 최소 2-2-1, 최대 2-2-2의 시수가 될 수 있다. 중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주당 최대 3시간이나 차이나게 편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체육은 신체활동의 참여 습관화와 평생 체육의 연계 가능성을 높일 것을 기대받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체육교사들은 고등학교 체육 교과목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려 노력하면서도, 주당 2시간 또는 1시간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에서,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교과 시간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의 시간으로 편제되어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체육수업 시간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네. 여기는 그런데 전에 학교들은 원래 10단위였어서. 그런데 10단위였지만 창체(창의적 체험활동)로 항상 더 받아서. 첫 학교는 3학년이 한 시간이었고, 00고랑 00고는 1학년 2학년이 1시간씩이었는데 창체로 스포츠가 결국 들어가서 2시간이 다 지켜졌고. 여기는 그냥 다 2-2-2고. 10단위라 하더라도 창체로 다 지켜졌어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고1이 1시간이긴 한데, 고2에서 창체를 떼서, 2,2,3이 되었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또한, 부족한 체육수업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정성 교사는 시수를 감축하려는 학교의 움직임에 반대하여 2-2-2라는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저희는 2-2-2예요. 아직은 논의 중인데, 좀 강경하게. 1학년을 줄이려 하잖아요, 그걸 2단위로 유지하려고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학교에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3 주당 3시간이라는 시간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체육탐구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하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당 3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저희는 싸워서 이겨서 3시간씩이에요. 그래서 3종목이 가능하죠. 체육탐구 있잖아요, 다른 학교는 보통 소수를 대상으로 체육과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하잖아요. 저희는 전교생이 체육탐구를 배워요.

연구자: 그럼 시수를 1~3학년까지 합치면 12시간이에요?

연구참여자: 아, 고1이 1시간이긴 한데, 고2에서 창체(창의적 체험활동)를 떼서, 2-2-3이 되었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1~2시간에 불과한 고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의 확보는 체육수업의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체육교사들이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적 환경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환경이란 교육과정 실행이 일어나는 교사, 학생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상황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성향’, ‘학교 규모’, ‘코로나-19’ 세 가지를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가) 학생들의 성향

교육과정 실행은 교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실행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성향과 반응은 수업 이후 즉각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임열정 교사는 학교를 옮긴 후면 이 학교가 학구적인 학교인지, 체육 활동이 활성화되어 예술·체육 교과가 중심이 되는 학교인지, 예술·체육이 어려운 학교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정보들은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 활용될 수 있었다.

저는 옮기면 첫째에 그 학교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학생들.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향. 어떤 데는 좀 학구적인 학교도 있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서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서 오히려 예술체육 교과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과목의 우선순위랄까,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미술 체육 약간 죽어 있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펼쳐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살피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여고생의 특성에 따라 수업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전배려 교사는 여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신체적 활동으로 인해 수치심과 좌절을 겪었던 여학생에게는 신체활동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전에는 남학교에서 있었다가 여학교로 가서 5년을 있었는데. 여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정서적 경험들을 어떻게 잘 어루만져주고, 그들이 겪었던 좌절이나 슬픔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것로부터 벗어나,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핵심이었다면.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이정성 교사 또한 여학생들에게 단계적인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친숙함을 느끼고,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고 설명하였다.

여학생 수업을 많이 하면, 여학생들은 스포츠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어서, 1차 과제를 완수하고, 2차 과제를 완수하는 걸로 학생들이 이 수업에 들어오게끔. 이 종목을 친숙하게 느끼고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여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체육수업을 통해 서로 소속감을 느끼도록 팀을 자주 꾸려가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하였다.

어쩌다 보니 지금 8년째 여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고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애들끼리 같이하면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팀도 깨거든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는 현재 특목고(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임전문 교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는 분위기는 체육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기숙학교라는 특징으로 인해 결석이 없어 변수가 잘 없으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때문에 원하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딱 좋은’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구자: 선생님은 현재 특목고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일반고에 근무하셨고. 이전 일반고에 근무하셨을 때와 교육과정 실행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연구참여자: 일단 학생들이 달라.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들도 없고. 어쨌든 체육수업은 팀별 경기가 많기 때문에 빠지면 치명적인데,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 그럴 확률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 교육과정을 짜고, 그걸 구현하기에 딱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체육을 좋아하는지, 또는 체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인지, 그리고 교과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등 학생들의 성향은 수업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학교 규모: 전교생이 다섯 명

학교의 규모는 학교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모의 학교에서는 학년당 여러 학급, 그리고 학급당 20~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된 곳은 학년별 학급이 1~2반일 수도, 또는 학급 당 인원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연구참여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의 규모 또한 체육수업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실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컨설팅을 나갔던 일화를 소개해 주며 학교의 특성이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전교생이 다섯 명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시수, 교과목 편성, 학년의 계열성이 그대로 실행될 수 없다. 특히, 체육수업에서는 팀 활동을 전제로 한 많은 스포츠 종목을 수업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저쪽 충북 보은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학교에 수업장학 컨설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중략) 갔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학교도 되게 크고 좋아요. 그런데 전교생이 다섯 명이야, 1, 2, 3학년이 다 있는데. 선생님은 열두 명인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 다섯 명이 통합학급이래요. 학년은 무학년제예요. (중략) 항상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체육교과수업을 다섯 명이, 그것도 성별도 다 다르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체로 하는 스포츠는 경험조차 할 수 없겠고. 기본적으로 학교 내 스포츠클럽 구성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다른 학교와의 대교경기,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도 당연히 못 나가는 거고. 그럼 애네는 대체 어떻게 있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와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되게 교육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학교 규모가 컸지만, 학급 수가 매우 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원도에 있는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경쟁 스포츠는 수업내용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인원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낚시, 스키, 캠핑 등의 수업을 계획한다고 말해주었다.

저는 학년당 12, 13학급인 학교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수도권 도시랑도 비슷한데. 철원이라 화천 이쪽에서 작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보면 자연환경에 맞춰서 낚시, 스키, 캠핑,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것도 좋네, 생각했어요. 낚시 수업도 하고, 스키는 이쪽에서 워낙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학생 수가 적어서 일반 경쟁 스포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소규모 학교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스포츠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소수라서 가능한 또 다른 활동을 수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규모는 수업 내용, 방법과 같은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코로나-19: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초래되며,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도 낯설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이예슬 외, 2021).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학교도 함

게 겪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등교’, ‘원격 수업’, ‘학년별 격주 등교’을 2년 동안 겪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등 매우 빠르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체육수업 또한 코로나-19로부터 매우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체육교사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자료를 활용해 온라인 교수·학습을 실시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예슬 외(2021)는 코로나-19가 학교 현장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 ‘위기’와 ‘기회’를 모두 엿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전배려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제한적으로 되었음에 가장 큰 아쉬움을 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체육시설의 제한, 온라인 체육수업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축소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양과 폭을 줄이고 체육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위축시킨 것이다.

애네들이 생각보다 체육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중략) 워낙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나간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니까. 다양하지 못하니까 경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다양한 종목도 하고 과제 실천도 했다면 경험도 풍부해지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뭔가 했으니까 경험의 양과 폭이 워낙 적었어.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격주로 이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잦았다. 임열정 교사는 과거에는 항상 경기 평가를 진행했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경기 평가를 포기하게 된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었다.

경기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넣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못 넣었어요. 팬데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못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화, 세분화할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팬데믹 이전, 과거에는 반드시 넣었어요.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체육수업 속에서도 교사들은 교수·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론 중심 수업, 신체활동 콘텐츠 제시 및 확인, 그리고 실시한 쌍방향 신체활동 진행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조기희 외, 2021). 이성실 교사는 그중에서도 교과서를 활용한 이론 중심 수업을 실시하였다. 교과서 pdf 파일을 활용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QR코드를 연결한 영상 시청, 발표 수업의 경험을 소개 해주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중략) 교과서 pdf 파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너무 좋은 게 QR코드와 같이 돼 있어서 유튜브와 연결해서 짤막한 1분 안쪽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해보게 하고 아이들 발표시키고. 그런 수업을 저는 최근 코로나 2년동안 2020, 2021동안 교과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반면, 코로나-19는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하민음 교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근무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교사일 수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교류를 통한 활동 범위의 확장을 통해 배우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의 학습 기회가 많아지고 즉,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옛날에는 경상북도의 체육교사일 뿐이었어요. 경상북도 안에서만 자기 연구 하고 다니는 교사였다면, 코로나가 터지고는 전국적으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졌잖아요, 연수라든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고. 제가 배우고, 또 배운 걸 경상북도 선생님들에게 나누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라. 교과적 요인

교과적 요인이란, 체육 교과와 관련한 요인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교과적 요인으로 ‘1) 체육과 교육과정’, ‘2) 고등학교 체육 교과의 특성’을 제시하였으

며, 하위 요소로는 ‘교육과정 개정의 파급력’, ‘교육과정 실행 당위성의 모호함’ 등을 발견하였다.

1) 체육과 교육과정

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은 교육과정 관련 문서, 연수, 자료들을 통해 전달된다. 개정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미래 교육의 기준점이 되는 목표와 교육 내용을 지역, 학교, 교사단위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점차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킨다. 이성실 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을 때 초반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점차 사람들의 인식에 녹아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건도경표여였죠. 그때는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뭐, 그랬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한편, 유인성 교사는 교육과정은 계속 개정되지만, 현장에서는 매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되고,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현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였다. 이정성 교사 또한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이를 습득하기 위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을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된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많아요. 매번 바뀌기만 하지 뭐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 하면 현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잘 안 본다는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우선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교과서가 새로 나오면 선택하라고만 하지, 정말 필요한 연수를 안 해준다는 거죠. 에듀파인이 바뀌어도 파워포인트나 매뉴얼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나. 교육과정 문서 자체도, 문서에다가 누가 필기해서 좀 찢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밀착형으로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역, 학교,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지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얼마나 잘 보급되는가,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얼마나 빠르게, 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나) 현장의 목소리 반영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교사들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정성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에 단위학교 수준의 이야기를 더욱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교육과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학문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연히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크게 품고 있었다.

좀 더 교사들의, 단위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이야기를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중략)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 안되는 거 아닌가?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는 교육과정이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현장의 교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역량을 기르는 연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 현장에 적용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럼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보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수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현장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구자: 어떻게?

연구참여자: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데 이제 또 개발진들의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긴한데. 학문적으로 접근하되 그걸 좀 더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2) 고등학교 체육의 흑과 백

고등학교 체육은 신체활동 가치에 대한 기초교육을 배우는 초등학교 단계와 신체활동 가치의 심화 교육 단계를 지나, 사회 진출 이후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수준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윤주석 외, 2019). 반면,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체육교과에서 제시하는 수업내용과 목표는 현장에서 ‘불분명’하게 여겨지고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당위성이 주어지지 않음을 비판받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체육의 이러한 양면을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으며, ‘흑’과 ‘백’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흑: 교육과정 실행 당위성의 모호함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실행 여부에 대해 현장에서는 평가되지도,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다. 특히, 체육교과는 교과서 진도와 학년별 과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지 교과와 달리 교육 내용의 위계 설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융통성이 크게 허용되는 교과이며, 따라서 교과서와 학습 진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강신복, 2009).

연구참여자들은 교과 진도를 맞추어 수업하고 시험을 통해 학습을 확인해야만 하는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체육교과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성실 교사는 체육 교과는 교사의 아량에 의해 수업이 한없이 어려울 수도, 그리고 쉬울 수도 있기에 ‘아나공’ 수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활용을 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일단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교과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진도를 맞춰야 되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평가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든 어쨌든 평가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육교과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접근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 그냥 아나공으로 하고 평가 간단하게 두 개만 보고 끝.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정성 교사 또한 교육과정 자체가 교과서에 녹아 들어가고, 교과서를 따라 수업하면 교육과정을 배제할 수 없는 다른 교과와 달리, 체육교과는 수업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생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교과는 교육과정 자체가 교과서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의 방향대로 가르치다 보면 교육과정을 거스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역사나 국어같은 교과서는 어떤 지문을 선택하느냐, 시대적 배경조차도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성이야.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의 당위성이 모호함에 따라 현장의 교사들이 체육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 의문을 남으며,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백: 평생 체육의 디딤돌

한편, 고등학교 체육수업은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를 익히고, 학습자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중요한 교육 단계라고 여겨진다. 연구참여자들 또한 고등학교 체육이 평생 체육의 디딤돌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고 수업에 옮기는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가 더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나가서 바로 체육 정책을 할 수 있는 입안자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체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고등학교 체육수업이 입시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고등학교는 수업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이 아이들 마음속에 좀 비수기에 가까운 이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질문을 잘 던질까? 내용적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애들이 짜증을 안 내고 적당히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3.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12명의 교육과정 실행이 3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육과정 신뢰형’, ‘교육과정 취택형’, ‘교육과정 냉담형’ 이라는 3가지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으로, 본 절에서는 각 유형에서 드러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 실행의 특징을 기술하여 제시하였다.

가. 교육과정 신뢰형

교육과정 신뢰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수업의 바이블’로 여기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수업의 바이블”

교육과정 신뢰형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수업에서 꼭 지켜야 할 ‘바이블’이라 여겼다.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육과정에 대해 ‘수업의 공통된 합의점’, ‘미래의 초석’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Snyder & Zumwalt(1992)가 제시하는 충실 관점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좋은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을 고려하며 주변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과정 신뢰형과 충실 관점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상호작용 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가) 수업의 공통된 합의점

지방분권적 교육과정 체제가 갖추어진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이 지역과 학교에 대폭 이양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시작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수업의 시작이자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없어요. 주 단위의 교육과정 있지. 근데 그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를 좀 해요.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는 거죠. (중략)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하지만, 수업의 근거라는 것이 곧 수업에서 똑같이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지역수준, 학교수준을 거쳐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 실행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수업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수업을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은 바로 학교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학교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에 따라서 그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자체가, 체육과 교육과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최근에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교사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자율성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협동 교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체육수업에서 오로지 독창적인 것, 특별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에 수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대회에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특별할수록 더 노력한 좋은 수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은 오해이며, 기본적으로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수업을 한 것인지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수업 점검의 토대이자 근거가 공통적인 합의점인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수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하고,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점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저희 수업 연구실천대회나 좀 유명한 선생님들의 수업은 나만의 독창적인 수업, 교육과정에서 벗어날수록 뭔가 좀 특별하고 더 노력한 수업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략) 교육과정에 근거한 체육 수업을 이야기하는데 나만의 개똥철학 체육 수업을 얘기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교육의 교사라면 교육과정을 근거해서 같이 이야기해서 수업을 같이 공동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각 학교급, 교과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목표이자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인성 교사와 하민음 교사 또한 교육과정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토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따라야 할 것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공통적인 부분을 따른다면 교사 개인의 능력, 선호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편식’의 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오개념 시험 문제나 수업에 대해 오개념이 있듯이, 교육과정도 오개념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잡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도 좋지만, 교사의 '나만의 교육과정과 철학, 가치'를 100% 다 가지고 가면 그 선생님의 가치가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철학이거나, 혹은 특별하거나 개인적인 것처럼 정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걸 100%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겠죠. 검증되지 않았고, 편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하민음 교사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나만의 것을 가르치고 나만의 목표를 향하는 것보다,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적 분모를 알고, 공통적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라는 진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진학, 또 진학을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보다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 인센티브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세특이나 진로진학에 반영을 시켜줘야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중략)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나) 미래의 초석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을 '미래의 초석'이라고 표현하였다. 체육과 교육과정을 읽어보며 1차 목표로 이해하고,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수업이 되고, 학교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학생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바꾸는 토대이자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읽어보고, 1차 목표로 가져간다는 것은 내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학교와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가 교육과정에 대해 가졌던 관점이 변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미래가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미래의 초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반영된다. 이협동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이 학생의 미래, 학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과정은 계속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하며, 교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육과정은 개정 시기에 그걸 예측하고 개발을 하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시점이 개발되고서도 중고등학생들의 한 삼 년 정도 뒤부터 적용이 되니까. 미래는 그리고 그 뒤로도 한 7~8년 정도 칠 년 정도 계속 적용이 될 거니까. 그때 이게 과연 적합한지를 생각하고 아마 개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이해한다는 거는 현재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개선점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우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될 것인가, 그게 교육과정 같아요, 생각할 지점을 주는 거죠. (중략) 국가 교육과정은 이상적인 걸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현실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길러줄 건지, 이 체육과 핵심 개념을 선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은 미래 지향적이거나 체육과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한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교육과정 채택형 유형 교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특징으로는 ‘교과서 기반 수업’, ‘교육과정의 영역과 성취기준 준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교과서 기반 수업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학생들이 배워야 할 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명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것을 문서라는 그릇에 담아낸 대표적인 문서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료를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이윤미, 2020).

교육과정 신뢰형의 교사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담아낸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성실 교사는 교과서를 ‘수업의 바이블’로 여겼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이 교과서에 녹아 들어가 있으며,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이 곧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저에게는 수업의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 안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의 수업의 목표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내용체계, 교수학습, 평가까지 잘 녹여져 있기 때문에... (중략)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거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와 하민음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영상 링크, 신문 기사, 종목에 대한 설명 및 사진 자료 등 다양한 활동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QR코드나 인터넷 주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교과서 안에 신문 기사가 있어요. 뭐 읽을거리, 읽을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전에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저는 교과서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교과서의 사진이나, 도안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패들릿이나 설문지에 공유하는 편이에요. (중략) 개념과 유형, 탁구의 기본 방법과 규칙, 관련된 네트형 경기들의 규칙 같은 것이요.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와 이협동 교사는 교과서를 이용하여 워크북 및 활동지를 다시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인성 교사는 워크북을 직접 만들어 이론적인 내용 및 다른 영역과의 융합하였으며, 이협동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발췌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경쟁활동 안에 있는 농구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조금씩.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심판법도 있고. 거기 안에 내용들에 대한 분석, 농구에 대한 시 쓰기, 관람. 영상을 패들릿에 올려주고, 영상에 관련된 줄거리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쓰고요. 이건 서술형이라고 해서 농구 경기에서 봤을 때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쪽 쓰게 되어 있고. 국가수준에 있는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을 뽑아서 교과서나 자료들을 사용해서 짜깁기를 하는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일단 읽어보고 교과서에서는 저는 활동지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중략) 쓰기, 기록 활동까지 다. 교과서 보고 발췌를 해요. 교과서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EBS에서 고등학교 체육을 강의한 경험이 있다. 이때에도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까지 활용하여 강의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 보자는 취지로 했고,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가 종목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스포츠 생활에서 종목 중심의 활동들, 그리고 주제 중심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5종 교과서를 취합해서 빠짐없이 32강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교육과정 신뢰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자료로서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시각적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 편집하여 워크북을 재제작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영역과 성취기준 준수

체육과 교육과정은 크게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며, 영역은 ‘성취기준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핵심어로 제시한 것’이다(교육부, 2015b). 교육과정 신뢰형의 교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영역을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써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체육 교과에서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다섯 가지의 영역과 이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전문 교사와 이성실 교사는 고등학교 수업 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성실 교사는 학생들이 이전 학년에는 어떤 영역을 배웠는지도 파악하여 놓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건,도,경,표,안(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틀이 있잖아. (중략) 일단은 모든 영역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지. 중학교에서는 시수가 많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시수가 적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건들려고 노력하지.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애네가 1학년 때 뭘 배웠고, 2학년 때 뭘 배웠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똑같아요. 표현과 안전을 안 배웠어요. 그러면 3학년 때는 반드시 표현과 안전을 아주 적게나마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협동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자신의 수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가 성취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선생님의 수업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도가 5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라 간단히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참여자: 성취기준인 것 같아요. 성취기준을 빠짐없이 어떻게 다뤄볼 것인가, 노력하는 것. 그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협동 교사, 심층면담)

유인성 교사 또한 수업을 계획할 때에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잡고, 해야 할 것을 뽑아내고 교과서와 자료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은 국가수준에 있는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을 뽑아서 교과서나 자료들을 사용해서 짜집기를 하는 거죠.

(유인성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교육과정 신뢰형 교사들에게 있어 성취기준은 수업내용과 자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교육과정 취택형

교육과정 취택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지만, 수업에 있어 많은 내용과 방법이 교사에 의해 결정되며 바뀔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이 아닌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 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중요한 것만, 쏙쏙”

교육과정 취택형 유형에 나타나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으로 ‘수업의 큰 틀’,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수업의 큰 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지이자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실천적 수준이 된다(하혁, 박대원, 2020).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수업을 위한 큰 틀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으니까. 큰 틀과 길잡이 정도로 보고 학교 상황에 맞게 변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국가수준이 있어야 기준으로 잡고 제 수업을 운영하고, 제 수업을 운영할 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나침반이기 때문에 상호보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국가수준은 국가수준일 뿐이고,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변형하고, 어떻게 변형할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는 교육과정은 큰 틀이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것을 변형할 수 있으며 재구성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큰 틀 안에서는 다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교육과정 따르지 않고 평가계획서 만들고 수업도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징계를 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잖아. 그렇게 재구성의 범위도 아주 넓어질거야.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취택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모두 충실하게 따라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지키되, 수업에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중요한 걸 선별하고 활용하여 자신만의 수업을 만들었다. 임열정 교사는 교육과정을 ‘쑥쑥’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학교의 특성, 시설, 그리고 동료 교사, 적은 시수 등의 환경적인 이유로 교육과정에 무조건 충실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을 네비게이션처럼 무조건 따라갈 수만은 없으며 교사와는 ‘느슨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획기적으로 교육과정을 현장교육에 많이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학교의 특성, 시설, 또 동료 교사들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과정을 많이 충실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선별적으로 좀 하죠. (중략) 실제 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된 영역일 수밖에 없어요. (중략) 수학이나 과학은 그 흐름대로 다 가르치잖아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체육은 그런데 여기서 빼서 가르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수도 적은 상태이고, 환경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마치 네비게이션처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느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구요.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나)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

교사수준 교육과정이란 교사가 학생 발달단계의 성취 능력과 특성 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과 교사를 토대로 교사가 개인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첨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취택형의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스스로 재구성한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가 대상으로 할 수업환경, 수업 대상, 수업 조건 등등 특수성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교사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은 교사만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선생님의 학교 학생들의 수준, 주변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죠.

(하민음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며 교사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옮기는’ 역할로부터, 교육과정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결정권이 교사에게 점차 부여되며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점차 대강화(大康化)되고 있으며, (강충열 외, 2000; 유정애, 2010에서 재인용) 최근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교사수준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택형 교사들 또한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매우 다양한 교육환경 속에서 획일화되어 주어지는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으며 크

게는 지역에 따라서, 작게는 당일 분위기에 따라서도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격, 목표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건 학교 환경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획일화시켜서 하나하나 정하는 것보다 학교와 아이들의 환경, 그리고 그날 수업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고 유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있는 것보다는 큰 범위가 낫지 않을까. (중략) 학생 수도 그렇고, 환경도 이런 것에 따라서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임열정 교사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였다.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역량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자칫 지나치게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어찌면 교육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것 보다는 교사들만의 교사 나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사 교육과정으로.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교육과정 취택형 유형에서의 교육과정 실행 특징으로는 ‘필요한 부분 취사선택’, ‘현실과 타협하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

교육과정 취택형의 이야기를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해, 또는 자신의 선호도에 의해 교육과정의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평가계획서와 연간계획서 제출, 생활기록부 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활용하였다. 교사들은 매 학년 초에 평가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때,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해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지 결정해야 하며, 그 속에서 무엇을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교육과정 취택형의 사들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 영역을 활용하고 있었다.

먼저 연간 계획서는, 사실 평가계획서에서는 모든 학교가 성취기준을 넣게 되어있잖아요. 내용도 선정해야 되고. 내용 그리고 그것에 맞는 성취기준, 그리고 그에 맞는 평가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성취기준은 거의 국가수준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고.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계획 때 가장 중요하고, 그 뒤부터는 교사수준에서 다 재구성을 해가니까. 끝까지 교육과정을 따라서 뭐 수업을 할 건 없으니까. (중략)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이걸 내 수업에 그대로 옮겨심기, 이양하기에 관심은 없고, 그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서 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넣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또한,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역량’을 활용하고 있었다. 전배려 교사는 공식적인 용어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생활기록부에 교육과정의 ‘역량’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성취수준이랑 교육과정의 몇 가지 역량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생활기록부 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죠. 애들이 정서적 경험에서 자기 역량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라든가, 자기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런 용어로.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둘째, 교사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임열정 교사는 교육과정의 많은 내용 속에서도 핵심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에서 어떠한 종목을 가르친다면 그 종목 안에서도 어떤 핵심역량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수업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세분화된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전 핵심적인 건 핵심역량 쪽. 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길러줄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사소통능력이라든

지 뭐 등등을 좀 파악해서 이 종목에서는 이거에 집중하자. (중략) 어떤 종목을 정하고 그 종목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뭐가 있지? 신체수련능력 같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걸 보고 나는 그 중에 내 수업에서 나는 뭘 초점을 맞추고 싶다 찾아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더 기억하고, 수업시간에 해내려고 노력을 하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는 교육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고 훌륭하고. 목적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건 필요 없고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나) 현실과 교육과정의 타협

중학교 체육은 주당 최소 2시간~3시간의 체육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반면에 고등학교 체육은 3년간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로, 주당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의 체육 시간만을 보장받고 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적은 시수 속에서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과정 취택형 교사들 또한 적은 시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상황에 타협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취사선택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임열정 교사는 수업 내용으로는 주로 구기 종목과 스포츠를 선택하며, 핵심역량을 관련지어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학교는 그나마 3~4시간 되니까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1~2시간 하라고 해두고, 교육과정은 막 이렇게 넓게 해놓고, 수업에는 어떻게 때려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접고, 이 정도만 보고 참고하고 다섯 개 영역 중에 뭐할까 선택하고. (중략) 주로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 하면서 관련된 것 좀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핵심역량을 좀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업 시수에서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남미소 교사는 가능하면 취사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1학년 수업에서는 5개 영역 중 시간에 맞추어 경쟁과 안전영역의 수업내용을 선택한다고 말하였다.

내용 선정할 때는 이게 또 고등학교 1, 2단위인데 5가지 영역 모든 걸 다 하기가 사실 빠지는 날도 많고 해서 어려워, 또 가능하면 채우려고 하지만 환경에 맞춰서 그냥 경쟁을 좀 넣고 나중에 안전은 좀 강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고등학교 체육교과는 2학년은 일반선택과목인 ‘운동과 건강’ 과목, 3학년은 ‘스포츠 생활’ 또는 ‘체육탐구’ 과목으로 구성된다. 이때, 1학년 ‘체육’ 과목에서 제시되는 신체활동 가치 영역 5개(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2학년과 3학년의 수업을 살펴보면, 2학년 ‘운동과 건강’ 과목에서는 건강과 안전 두 개 영역을 포함하며, 3학년 ‘스포츠 생활’ 과목에서는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네 개 영역을 포함한다. 남택수 교사는 다른 학년은 4개 또는 5개 영역을 가르칠 수 있지만, 2학년 ‘운동과 건강’ 과목에는 2개 영역밖에 없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을 건강(영역)처럼’ 수업하는 전략을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저희는 일학년 체육, 이학년 운동과 건강, 삼학년 스포츠 생활 이렇게 하거든요. 둘 둘 하나 단위로. 그런데 운동과 건강은 건강이랑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스포츠 생활은 건강,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게 1단위, 건강 안전 두가지 영역을 기본으로 하는 게 2단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따지면서 하기에는 사실 수업 진행이 안되죠. 교육과정에서는 운동과 건강이 일반선택이라서, 이걸 어쨌든 2학년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맞지 않다 현실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건강이랑 안전만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으니 우리 수준에서 변형하자. 경쟁을 건강처럼, 건강을 위해서 경쟁활동을 한다.

(남미소 교사. 심층면담)

이처럼, 교육과정 취택형의 교사들은 체육수업의 시수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자의 기준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교육과정 냉담형

교육과정 냉담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대해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이자 ‘현장과 별개의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문을 지니며 수업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읽히지 않는 베스트셀러”

교과서가 읽히지 않는 베스트 셀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봤어요. 베스트 셀러죠, 되게 잘 팔려요. 되게 잘 팔리는데 아무도 읽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읽지 않고, 학생들도 읽지 않고. 특히 나 체육교과서는 더.. 읽히지 않습니다.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교육과정 냉담형으로 나타나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인식은 ‘유명무실’, ‘현장과 별개의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 유명무실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의 수업에 교육과정을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체육 교육과정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전배려 교사는 국어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배워야 할 내용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데 반해, 체육 교과에서는 정해진 수준과 단계가 없기에 중학교 1학년에 축구를 배우면 어떤 아이들은 킥만, 어떤 아이들은 드리블만, 또 어떤 아이들은 계속 놀기만 할 수도 있다며,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을 지적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다녔으면 적어도 국어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배우듯이, 체육과 수준에서는 아, 중학교 1학년을 다녔다고 하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개는 이 정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체육과에서는 그게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축구만 넣어놨지, 누구는 킥만, 누구는 드리블만, 누구는 공만 가지고 계속 놀기만 했어. 그래도 다들 축구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고등학교 체육 교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2015b)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1은 체육 과목, 고2는 운동과 건강 과목, 3학년은 스포츠 생활 또는 체육탐구 과목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각 과목의 계열성이 비판받기도 한다. 조행복 교사는 체육, 운동과 건강, 체육탐구와 같은 고등학교 체육과 과목에 차별성이 없으며, 계열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체육도 체육이고 운동과 건강도 체육이고, 체육탐구도 체육이고, 스포츠 생활도 체육이고. (중략) 정말로 구분이 돼 있어서 무슨 계열성이 있는 건지.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와 임열정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라면, 각자 다른 수업의 현실 속에서 어차피 수업은 달라질 수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에 교육과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낌을 말하였다.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사가 근무지가 달라지는 순간 수업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지금도 일제 강점기도, 군사정부도 아닌데 지금도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넣으라, 이걸 꼭 담아야 된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중략) 써먹을 게 많지가 않은 거야. 너무 멋있는 말들, 아름다운 말들, 현학적인 표현들은 가득한데, 현장에서 뭘 써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작게 되고, 소외되고. 이런 거 필요없어 제끼게 되고.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마음 교사는 교과서 또한 유명무실한 문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농구를 가르친다면 교과서에는 ‘드리블’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교수법이나 연습법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 평범한 수준으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육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해당 종목을 알거나 내용을 알면 알 수 있는 너무 노멀(평범)한 내용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이다.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 쉬운 내용이다. (중략) 예를 들어 농구이다. 드리블 수업을 해야 하는데, 노멀하게 드리블 한다고만 나와 있으면 참고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드리블에 대한 드릴 그런 게 몇 개라도 소개가 되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구나. 패스 수업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가 될 텐데. 패스도 어떻게 하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어있으면 수업 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리블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으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문서, 대표적으로 교과서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은 ‘유명무실’의 것이자 현장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 현장과 별개의 것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현장과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에서도 교육과정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교육과정이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만들어졌다고보다는, 학문가를 중심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교육과정이 체육수업을 10년, 15년 정말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진 현장경험, 실천지식을 근거로 해서 다져지고 다져진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학문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학문의 추세에 따라서 만들어진 현장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제3의 무엇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중략) 현장과 매치가 안되는 느낌도 있고 해서.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가진 교육철학에 의해 교육과정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발하는 몇 명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과정 철학에 의해서. 저는 두세 명이라고 생각해요. 두세 명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략) 만약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세 개 영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6-7년 뒤에 2028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고 거기 개발자들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철학에 의해서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와 같이, 체육과 교육과정이 현장과 별개로 개발자의 의도로 인해 생성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과정 냉담형 교사들은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교육과정 실행 특징

교육과정 냉담형으로 나타나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특징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다. 경력 있는 체육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보다는 경험의 축적을 통한 노하우에만 의존하는 교사가 되는 현실은 선행연구에

서도 재조명된 바가 있다(송지현 외, 2018).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냉담형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전배려 교사는 이미 충분한 체육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업을 구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내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내 수업을 짜거나 할 때 반영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냥, 이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 자유로와. 이 정도는 내가 자유롭게 짤 수 있지 싶어요.

(전배려 교사. 심층면담)

임전문 교사와 조행복 교사는 교과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스마트폰으로 찾는 사진 자료가 더 많은데 교과서의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체육수업에 교과서를 들고 나갈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솔직히 얘기해서, 교과서는 쓰겠어? (중략) 보통 많이 안 쓰지. 사진자료? 그냥 여기 폰에서 찾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거기서.

(임전문 교사. 심층면담)

교과서가 우리가 예전에도 체육시간에 교과서 들고 나오라고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품 잡는 것 같아요. 결국 들고가도 거의 안해요. 잘 안보죠.

(조행복 교사. 심층면담)

이성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성취기준을 복사, 붙여넣기하고 종목 이름만 바꾸며 평가계획서 및 연간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성취기준 되게 엉망인 거 아시죠. 요식 행위예요. 그래서 쓰라고 해서 쓰는거예요. 거기에 성취기준 예시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거기에다가 종목명만 이렇게 바꾸고,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써요.

(이성실 교사. 심층면담)

이정성 교사는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다른 업무 및 환경이 충분히 복잡하고, 교육과정까지 고려하기에는 여유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실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과 용·기구, 그다음에 학생들 수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시수, 고려할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까지 버무려서 하기에는 교사들이 업무도 너무 많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현장에서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나)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육과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가벼운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열정 교사는 수업 후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확인하는 서류 정도로 교육과정을 활용했으며, 이마음 교사 또한 교육과정을 살짝 봤을 때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걸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익혀서 내 수업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 고민하지는 않아요. 나는 내 나름의 스타일대로 해, 그런데 그것과 교육과정에서 하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사실 큰 방향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있는 건 아니구나,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확인하는 서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열정 교사. 심층면담)

아이들에게 하고싶은 내용들이랑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살짝 봤을 때 크게 이걸 신경써야겠다, 그런 것도 있겠죠. (중략) 내가 해놓고, 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어. 내가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만 있어도 저는 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마음 교사. 심층면담)

이정성 교사는 교육과정에 의해 교과 학습 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있기에 나만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이후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적합한 부분을 찾아보며 확인한다고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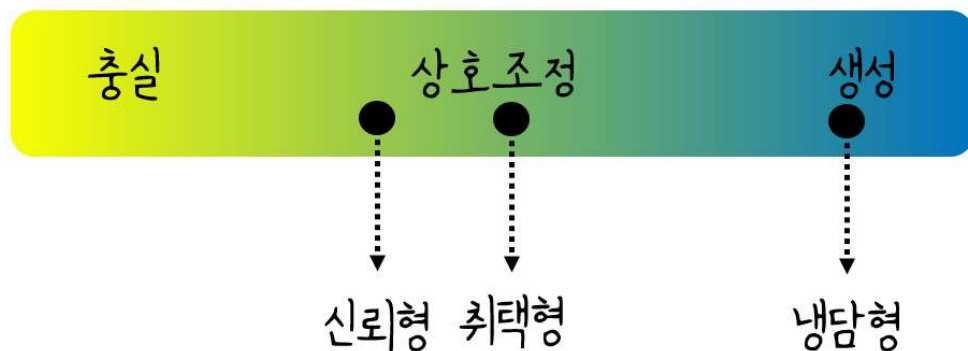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 학습 계획이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니까 조금 더 찾아보고,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이 있는지, 내가 구성한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역으로 찾아보는 거지.

(이정성 교사. 심층면담)

4. 종합 결과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교육과정 실행 관점은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방식, 양상, 결과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실제와 이론을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이윤미 외, 2015). Snyder & Zumwalt(1992)가 제시한 교육과정 실행 관점 ‘충실(fidelity)’, ‘상호작용(mutual adaptation)’, ‘생성(enactmen)’ 3가지는 앞서 발견한 교육과정 실행 유형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신뢰형, 취택형, 냉담형 3가지 유형과 교육과정 실행 관점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그림과 같다.

[그림 4] 교육과정 실행 관점과 유형의 관계



교육과정 실행은 충실과 생성 관점을 양 끝으로 하는 연속선 상 수많은 상호작용 관점이 존재하기에 충실과 생성 관점을 양 끝으로 중간에는 상호작용 관점인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교육과정 실행 스펙트럼과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실행 유형 3가지를 표현하자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실행 유형 3가지가 교육과정 실행 관점 3가지와 대칭의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스펙트럼 안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철학을 수업에 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교사 자신의 철학과 학교의 상황에 알맞게 변형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 관점에서도 충실 관점에 다소 가깝게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충실 관점은 교사가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와 계획대로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며,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의 수동적 전달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지닌 신뢰를 바탕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충실도 관점과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좋은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을 고려하며 주변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과정 신뢰형과 충실도 관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취택형은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의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수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호조정 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작용 관점은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양한 교육 환경과 맥락, 교사의 지식과 경험, 가치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 취사선택형의 교사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타협하고,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 하는 모습에서 상호작용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냉담형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있지

만, 간혹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생성 관점으로부터 상호작용 관점으로 약간 이동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생성 관점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자료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실행 관점이다.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 교육환경에 맞추어 교사 자신만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에서 교육과정 생성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종합 논의

가.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은 “문서 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업상황 및 교육과정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수업을 되돌아보며 체육수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은 이해, 계획, 실행의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종합적인 전문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의 ‘교육과정 문해’(박윤경 외, 2016; 박윤경 외, 2017; 백남진, 2013; 유성열, 정광순, 2020)와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강현석, 방기용, 2012; 박윤경, 2015; 서명석, 2011)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능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의 이해와 계획 단계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은 ‘교육과정 문해(curriculum literacy)’ 접근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배경과 교과의 내용 등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사의 지식을 종합하여 수업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백남진, 2013). 또한, 본 연구의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실행

행의 전문성은 ‘교육과정 재구성’ 접근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계획·실행·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을 교육적 상황과 학생에 맞추어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강현석, 방기용, 2013).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이해 또는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현규, 정광순, 2018; 유정애, 2010; 전용진, 이규일, 2011)를 지지함과 동시에 교육과정 실행자이자 학습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밝혀내었다. 우선,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교육과정이 구현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와 깊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유정애, 2010). 다음으로,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는 국가의 교육철학과 교육의 이상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학생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장경환, 2017).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평생 학습자로서 직업적 책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장경환(2017)). 이는 기존의 개발자, 실행자를 넘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하는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중추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사에게는 단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개발, 실행, 학습이라는 종합적인 역할이 부여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실천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연적이며 변화하는 교실 상황에서 주된 의사결정자인 교사의 성찰적 실천과 반성적 능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김순희, 2009; 김원정, 2012). 이론적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맥락에서 실천하고 반성하며 실제에서 이론으로 접근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김원정, 2012). 전용진과 이규일(2011)은 반성적 수업을 반복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로 성장한 교사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자,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로서 연구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반성적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실행자로서 교사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성하며 수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는 지금의 수업이 완벽하지 않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바뀌는 학생과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학습자로서 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수업을 되돌아보고,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없었는가에 대해 스스로 문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실천이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 교사에게 필수적인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실행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 결과 2에서는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교육과정 실행이 내실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2장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은 개인, 관계, 사회, 교과목의 네 가지 차원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실행 영향요인으로 Fullan(1982)은 교육과정 자체의 특성, 학교 구의 특성, 학교의 특성, 학교 구 외부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Schwab(1978)은 교사 요인, 교과 요인, 학습자 요인, 환경 요인으로, 권낙원 외(2006)는 교사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와 같이 교사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이 내실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뿐만 아니라 환경, 학습자, 교과 및 교육과정까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과서 집필, 교육과정 연수 참여와 같은 교육과정 관련 개인적 경험 및 교육과정 관련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교육과정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장경환(201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서 집필과 교육과정 개발진 경험은 학교체육 현장에서 충분한 경력과 수업 전문성을 인정받은 후에 가질 수 있는 선택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는 경력, 전문성과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관련 자료(교수·학습 지도안, 평가지, 용어 해설 등) 제공, 연수의 강화, 협력의 문화 조성이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대중, 임은주, 2021)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관련 교육 경험 및 학습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이론과 고등학교 체육교육 현장 사이에서 교사들은 “결국 안되는 거 아닌가?”와 같이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실제 학교 현장에 괴리가 있음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김선영, 김가은, 2015; 김평국, 2014; 유창완, 2018). ‘교육과정과 현장’이 ‘이상과 현실’이고,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이 학교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김두정, 김소영, 2017).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수는 적는데 교육과정은 많은 내용’, ‘철학적 얘기이자 이상일 뿐’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의 경직성’, ‘농·산·어촌의 오지’ 등 교육과정과 현실에서 교

사들이 느끼는 괴리로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다(김선영, 김가은, 2015; 김두정, 김소영,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 관한 논의

본 연구의 결과 3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으로 ‘교육과정 신뢰형’, ‘교육과정 취택형’, ‘교육과정 냉담형’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결과 4에서는 각 유형이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신뢰형’의 교사는 충실에 가까운 상호작용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공통적 합의점인 교육과정을 신뢰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나의 수업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게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서 충실 관점이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아갈 때 유용한 출발점과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반면, 박종덕(2011), 백남진(2013), 이경진(2006) 등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된다는 면에서 충실 관점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충실 관점이 ‘교육과정=교과서’로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교과서대로 진도 나가기’로 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차원을 분리되면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과 같은 기본적인 틀과 함께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윤미 외, 2015).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을 명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a) 충실 관점이 교사를 ‘수동적인 사용자’를 뜻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과정 신뢰형’의 교사는 교사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교육과정이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 공통적인 합의점으로서 제시하는 목표와 내용에 대해 신뢰함으로써

써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 관점이 부정적으로 간주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취택형’ 유형의 교사들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틀로써 제공될 뿐,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상호작용 관점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만이 교육과정의 내용, 학교의 복잡한 실정,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김진필 외, 2012)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의 ‘교육과정 취택형’ 유형의 교사들은 주당 1~2시간으로 주어진 짧은 체육수업과 많은 양의 교육과정을 타협하여 교육과정의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은 학생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토대로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첨가하는 일을 의미한다(에듀쿠스, 2018). ‘교육과정 취택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내용을 선별하는 데에서 그쳤으며 재구조화하거나 첨가하여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생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부족한 수업 시수와 업무 부담의 증가(강현석 외, 2020) 등 현장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체육수업 시수는 대학 입시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위축되어 있다(유창완, 2018). 그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급에 맞먹는 많은 양의 내용을 제시한다(교육부, 2015b).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체육수업 시수와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는 생성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현장과 별개의 것이라 인식하였으며,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원하는 내용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냉담형’의 교사가 지닌 부정적 면모가 두드러졌던 반면, 전용진과 이규일(2011), 전현욱(2021)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과 생성 관점이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능동적인 사용자로서 교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아가야 할 관점으로 주목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생성 관점의 해석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유정애(2010)의 연구에서 생성 관점을 강조하며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자는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능동적인 태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습을 지녔다. 이러한 맥락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생성 관점이란 교육과정을 무작정 배제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고민한 뒤 스스로 교육과정을 생성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발견한 ‘교육과정 냉담형’이 가진 생성 관점은 교육과정을 ‘유명무실의 것’, ‘요식 행위’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생성 관점은 국가의 기본적 목표와 내용에서 무작정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수업을 생성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즉, 교육과정 생성 관점은 ‘비판적 교육과정 이해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 창의적 개발’과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시’라는 해석의 양면성을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15a).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육환경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발견한 ‘교육과정 냉담형’이 지닌 생성 관점은 지양해야 할 측면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고등학교 체육은 다양한 신체활동의 가치를 익히고 학습자가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평생 체육을 지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손천택 외, 2011)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소외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대중 외,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고등학교 체육의 중심이 될 수업이 어떻게 내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체육과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접근하며 시작되었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실행 주체이며,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결정한다.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을 깊이 탐색하고,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과정, 실행에의 영향요인 실행 유형 및 실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및 고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에 기여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과정과 실행 전문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 유형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위의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이해, 계획, 실행의 단계에 따라 체육과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각 단계에서 드러나는 전문성은 어떠한 모습인지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을 꿰뚫어 보는 이해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을

알고,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며,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전문성이 드러났다.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계획 단계에서는 주변과 소통하고, 교육과정 재료를 활용하며, 나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을 생성하는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결하고, 좋은 체육수업을 되돌아보고, 수업을 되돌아보는 전문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과정 실행이 이해, 계획, 실행이라는 총체적인 과정으로 일어나며,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또한 이러한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종합적인 전문성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관계, 환경, 교과라는 네 가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교과서 집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관련 연수 등의 교육과정 관련 경험 요인과 평생체육과의 연계, 진선미 스포츠인 양성, 학생 중심 수업과 같은 교사 개인의 체육수업 철학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관계적 차원은 동료 교사와의 긍정적·부정적 관계 요인, 교과 내·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환경적 차원은 체육시설, 수업용 교구, 체육수업 시수라는 물리적 환경 요인과 학생들의 성향, 학교 규모,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환경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과적 요인은 교육과정 개정의 파급력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체육과 교육과정 요인과 교육과정 실행 당위성과 평생 체육의 디딤돌이라는 고등학교 체육의 흑과 백 요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결과에서 제시한 몇 가지 요인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이 내실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관련 경험은 교육과정 지식을 함양시키고 교육과정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과정 관련 교육 경험 및 학습공동체 활동의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짚을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육과정 실행의 특징에 따라 교육과정 신뢰형, 교

육과정 취택형, 교육과정 냉담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 신뢰형은 교육과정은 수업의 공통된 합의점이자 미래의 초석으로써 수업의 바이블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 유형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체육과 영역과 성취기준을 준수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충실에 가까운 상호작용 관점에 위치한다고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충실 관점의 교사를 수동적인 사용자로 간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교과서를 의미하지 않고, 교육과정 자체가 충분한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충실 관점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취택형은 교육과정을 수업의 큰 틀이자 교사수준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 유형의 교사들은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활용하고, 현실과 교육과정을 타협하며 교육과정을 실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상호작용 관점에 위치한다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 냉담형은 교육과정은 유명무실의 것이자 현장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유형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하고, 교육과정은 가끔 되돌아보는 정도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생성 관점에 위치한다고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냉담형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지만, 반면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 제공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무시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2. 제언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유형과 영향요인 및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과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및 체육수업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 우선, 예비교사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의 밑거름이 될 교육과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현직교사교육 단계에서도 수시 개정 체제의 교육과정 개발에 발을 맞추어 현행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목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연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전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교과 내·교과 간 교사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은 교육과정이라는 이론과 학교 현장에 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에는 교육과정 개발자와 사용자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서를 현장에 적합하게 개발하고자 현장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김기철, 유창완, 2012), 교육과정 포럼, 전문가 협의회 등이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2015a). 그러나, 교육과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진에 의해 만들어진 뒤 공청회, 공개 포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되면서도, 최종 결정권자 및 수정의 권한은 여전히 개발진에 있으며 수직적인 개발 형태가 유지되었다.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현실과 먼 ‘이론’으로만 치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함께 수정·결정할 수 있는 수평적 교육과정 개발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체육수업 현장에서 충실 관점에 대해 재조명하고, 충실에서 생성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관점이 적절하게 고려된 교육과정 실행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미래 교육을 설계하며 공통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무시하는 것도, 교사의 자율성이 발휘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의 내용만을 다양한 수업환경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이상적인 교육과정 실행이라 할 수 없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적 목표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환경과 학습자에 맞추어 교사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이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목표인 평생 체육의 디딤돌이 되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실행의 주체인 교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측면이 있어 수업의 또 다른 주체가 되는 학생 측면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에는 학생들의 학습수준, 성향 및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교육과정 실행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실행이 이루어지는 현장 관찰 및 학생의 모습을 관찰하지는 못하였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실행이 어떻게 인식되고 교육적 결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단위학교 또는 교사의 단위에서 교육과정 실행을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이어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이 내실화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체육수업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실행에 관련한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체제 속에서 체육교사는 학생의 수요에 맞추어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을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중학교와 비교하여 고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실행은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고등학교 체육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복(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레인보우북스.
- 강영혜(2009). **고등학교 운영체제 혁신방안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RR 2009-02). 한국교육개발원.
- 강신복, 이충원(2001). 제 7 차 체육교육과정의 중학교 적용과정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1-16.
- 강충열, 박승렬(2000). **제7차 교육과정의 지역화·개별화 실천방안 연구**. 교육부.
- 강현석, 나강예, 김수영(2020).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169-202.
- 강현석, 방기용(2012). 교육과정 재구성 저해 요인 분석을 위한 탐색. **수산해양교육연구**, 24(1), 123-135.
- 곽영순(2015).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 전문성 탐색. **교과교육학연구**, 19(1), 93-111.
- 교육부(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교육부.
- 교육부(2015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2018). **2015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교육부.
- 교육부(2021).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세종: 교육부.
- 권낙원, 추광재, 박승렬(2006). 교육과정 실행 수준 결정 요인 탐색. **교육과정연구**, 24(3), 87-106.
- 권병선(1999). 스포츠교육학: 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3), 297-311.
- 김경자(1994). 세계화와 교육과정 변화: 방향설정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8, 19-32.

- 김경자(200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자로서의 초등교사. **교육과학연구**, 34(1), 145-161.
- 김기철, 유창완(2012). 교사의 관점에서 본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발 경험과 그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4), 149-166.
- 김두정(2009).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의 이론: 혼합적 연구 방법을 통한 교사의 실천적지식의 탐구. **교육과정연구**, 27(3), 127-157.
- 김두정, 김소영(2017). 교육과정의 실행 기준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실행 요인 및 기준, 교육과정 실행의 실태 및 개혁의 과제-. **교육문화연구**, 23(2), 37-59.
- 김민수, 김승재(2003). 제 7차 중학교 체육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1), 93-106.
- 김민희(2015). 지역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안 탐색. **사회과학연구**, 32(1), 77-96.
- 김석희, 유영규(2008). 경기지역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 조사. **한국체육학회지**, 47(3), 165-179.
- 김선영, 김가은(2015).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261-285.
- 김순희(2009).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위한 방안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101-121.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1**.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덕, 임현주(2013).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겪는 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결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 **한국체육과학회지**, 22(1), 753-767.
- 김용환(2011). 신체 활동 가치 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교재 개발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1), 1-13.
- 김원정(2010). 예비 체육교사의 수업 시연을 통한 자기수업반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25-52.
- 김원정(2012). 예비체육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통해 본 “행위 중 반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53-176.

- 김재복(1997).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교육논총**, 14, 25-48.
- 김재복(1998). 교육과정 평가의 개념모형. **교육과정연구**, 16(1), 375-395.
- 김정미, 조흥순(2020).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운영 실제 연구 : 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6(4), 1.
- 김중훈(2017). 교사들이 형성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 탐색. **교육과정연구**, 35(4), 281-301.
- 김진필, 박종률, 박대원(2012). 중등체육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1), 31-50.
- 김평국(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22(2), 135-161.
- 김평국(2005).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향. **교육과정연구**, 23(4), 91-130.
- 김평국(2014). 국가 교육과정의 적용 단계에서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와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3), 95-122.
- 김필성(2021). 중등교사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행 경험의 내러티브.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9(1), 145-174.
- 김현규, 정광순(2018). 교육과정 자료 사용자로서 교사와 교육과정 자료 개발자로서 교사 개념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2(3), 49-72.
- 김형수(2021).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파주: 아시아.
- 권병선(1999). 스포츠교육학: 체육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8(3), 297-311.
- 나봉순, 김태홍(2000). 고등학교 체육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9(1), 379-386.
- 류태호, 이규일(2009). 좋은 체육수업을 지향하는 세 교사의 수업실천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2(2), 45-69.
- 문경남(2017). **운동소양 함양을 이끄는 통합적 초등 체육을 위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문호준(2005). 제 7차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체육교사의 관심도와 실행수준

- 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3), 75-96.
- 박경석(2020). 초·중등 체육수업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도출 및 타당화.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773-783.
- 박대권, 남석희. (201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체육 평가 실행 양상.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15-25.
- 박민정, 성열관(2011). 교육과정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2000 년 이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4), 25-46.
- 박순경(2003). 교육과정 탐구 주제로서의 교사 전문성 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 **교육학연구**, 41(2), 75-92.
- 박연실(2010). **현대디자인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 박윤경(2015).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인식 및 재구성 실태 조사. **초등교육연구**, 28(4), 117-143.
- 박윤경, 정종성, 김병수(2016).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련 인식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9(2), 105-128.
- 박윤경, 김미혜, 김병수(2017). 교육과정 문해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교육연구논총**, 38(4), 27-50.
- 박재정(2015). 초등학교 체육교과서에 제시된 간접체험활동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1), 77-92.
- 박종덕(2011). 교사의 해석적 실천에 기초한 교육과정 실행 방안: 내러티브적 관점. **교육과정연구**, 29(4), 113-135.
- 박창언(2013). 교육과정의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 권한의 문제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31(1), 79-102.
- 박채형(2003). 교육과정 지역화의 성격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21(4), 115-132.
- 백남진(2013).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과 교육과정 잠재력. **교육과정연구**, 31(3), 201-225.
- 서경혜(2009).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과정연구**, 27(3), 159-189.
- 서명석(2011).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적 애매성과 모호성 비판. **교육과정**

- 연구, 29(3), 75-91.
- 서명석(2012). 교과서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과 해석. **교육철학**, 47, 55-74.
- 소경희(2013). 미국의 교과교육에 있어서 국가공통 기준 도입 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주요 쟁점. **교육과정연구**, 31(1), 55-77.
- 소경희(2017). **교육과정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손천택, 백미숙, 김재중(2011). 협동학습 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비체육지도자의 정서경험 이해.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101-119.
- 송지현, 최원석(2018). 중등 경력 체육교사의 교육과정 PPTs 및 형성 배경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7(1), 181-194.
- 신기철(2007).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내용 재구성 방식 이해.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3), 71-88.
- 에듀쿠스(2018). **교사 수준 교육과정**. 경상남도: 북랩.
- 우치갑(2018).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서울: 즐거운학교
- 유성열, 정광순(2020).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 요인 탐색. **초등교육연구**, 33(3), 123-143.
- 유성열, 정광순(2021).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양상 분석 및 교사교육과정 개발의 특성 논의: S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9(2), 81-104.
- 유정애(2004). 스포츠교육학: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실태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3), 245-263.
- 유정애(2005). 체육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 및 내용 이해.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31-56.
- 유정애(2010). 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체육교사인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4), 1-18.
- 유창완(2015). 영국 학교체육정책 개발 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체육정책 개발에의 시사점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3), 119-134.
- 유창완(2018). 2015 개정 고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 탐

- 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3(2), 17-27.
- 윤기준, 이윤수(2019). 체육중점학교 운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체육과학연구**, 30(3), 555-571.
- 윤주석, 전선영, 강방수(2019). 고등학교 3학년이 바라본 체육수업의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58(2), 187-200.
- 이경진, 김경자(2005). 실행을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연구**, 23(3), 57-80.
- 이경진(2006).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2), 1-27.
- 이광옥(2012). 체육전공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관리,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의도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3), 105-116.
- 이광원(2012). 교육과정 디자인을 통한 초등교사의 사회과 교육과정 전문성.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6-42.
- 이규일, 오정훈, 천향욱(2020).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체육중점학교 교육과정의 성과와 한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71-94.
- 이규일, 허창혁(2011).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체육과 평가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39-58.
- 이근철, 서상진, 이강현(2014).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2), 105-118.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충청북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대중, 김대진, 임은주(2020).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활동 활성화 노력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4), 97-110.
- 이대중, 임은주(2021).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구현 실태 및 제고 방안.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SS)*, 9(3), 49.
- 이예슬, 신범철, 정양순(2021).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의 패러독스 현상. **교육학연구**, 59(1), 131-165.
- 이옥선(2013). 중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 현황과 전망. **교육연구와**

- 실천, 79, 101-115.
- 이윤미(2020).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양상 및 유형 탐색: 교육과정 자료 사용 및 동료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8(4), 207-236.
- 이윤미, 정광순(2015).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경험으로 본 교육과정 실행 관점과 의미. **교육과정 연구**, 33(4), 65-89.
- 이윤미, 조상연, 정광순(2015). 교육과정 실행 관점 국내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 **교육과정 연구**, 33(3), 79-100.
- 임유나, 홍후조(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내용 제시 방식 검토: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7(3), 277-302.
- 장경환. (2017). **초임교사의 체육 교육과정 실행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협력적 탐구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봉석, 장성민, 정민수, 신동로(2020). **교육과정**. 서울: 형설출판사
- 장용규, 김동식(2022).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체육수업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7(4), 1-15.
- 장용규, 이정택(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의 의미와 초등체육의 지향.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1), 77-91.
- 정광순(2012).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통합교육과정연구**, 6(2), 109-132.
- 정미라(1998).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그 관련기관 상호의 역할분담. **교육과정연구**, 16(1), 443-468.
- 전용진, 이규일(2011). '교육과정 개발자'관점에서 바라본 체육교사의 교육적 성장과 교육과정 실천의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3), 17-38.
- 전현욱(2021). 교육과정 실행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소고. **교육학연구**, 59(5), 83-105.
- 전현정, 강현석(2011). 내러티브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탐색. **교육철학**, 44, 287-325.
- 정광희(2016). **다양한 진로수요 맞춤형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

- :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혁신 방안**(RR2016-2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욱, 황예선, 오수일(2010). 운동장 및 체육수업 유무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신체활동량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 15(1), 301-310.
- 정현우(2017). 학교체육정책 실행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 체육교사의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4(4), 35-60.
- 정현철(2018). 학습자 중심의 체육 교과 선택형 수행평가 사례와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연구논총**, 39(3), 115-136.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15, 229-258.
- 제성준, 윤현수(2015). 좋은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중등 초임 체육교사가 겪는 사고변화. **교과교육학연구**, 19(2), 259-280.
- 조기희(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미혜, 김윤희, 서지영(1997).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체육 교육과정 변천의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4(1), 1-16.
- 조미혜, 오수학(2004). **체육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무지개사.
- 조미혜(2012). 융합의 시대에 대비한 체육교육과정의 과제. **교육문화연구**, 18(1), 5-25.
- 조호제, 남궁정(2008).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의 실행양상. **열린교육연구**, 16(3), 231-250.
- 진연경, 유정애(2015).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의 내용과 성과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343-372.
- 최원준, 김진희, 남수현(2004). 7차 교육과정과 스포츠교육: 학생중심 체육 수업 사례. **중등교육연구**, 52(2), 419.
- 최의창(2003). **체육교육탐구**. 서울: 태극문화사.
- 최의창(2018).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 박정준(2011). 창의·인성강조 체육수업의 개념과 방법: 통합적 관점

- 에서의 탐색. **교육과정연구**, 29(1), 209-237.
- 추갑식(2014). 신규초등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통합교육과정연구**, 8(2), 43-7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RRC, 99-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체육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좋은 수업 사례에 대한 질적 접근-**(RRC 2002-4-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효과 제고 방안**(RRC 2014-8).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혜정(2019).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관련 쟁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7(2), 53-81.
- 한혜정, 조덕주(2012).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홍진우(2021).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체육수업전문성 탐색 -교사의 인식, 개발 노력, 저해요인 및 극복조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홍후조(2002).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연구-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3), 119-152.
- 홍후조(2011). **알기 쉬운 교육과정**. 서울: 학지사.
- 홍후조(2018). 고교 학점제 도입의 문제와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 699-724.

- Armour, K. M., Goodyear, V. A., & Sandford, R. (2020). The digital age challenge. In A. MacPhail & H. Lawson (Eds.),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Teacher Education: Collaborative redesig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92-102). London: Routledge.
- Connelly, F. M., & Ben-Peretz, M. (1997). Teachers, research, and curriculum development. *The curriculum studies reader*, 178-197.
- Creswell, J., & Poth, C.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s Angeles: SAGE
- Denzin, N. K., Lincoln, Y. S., & Giardina, M. D. (2006). Disciplining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9(6), 769-782.
- Fullan, M. (1982). *The meaning of education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Fullan, M. (2007).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17.
- Merriam, S.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 (1984). Drawing valid meaning from qualitative data: Toward a shared craft. *Educational researcher*, 13(5), 20-30.
- Ornstein, A. C., & Hunkins, F. P. (1998). *Curriculum: Foundations, Principles, and issues(3rd)*, Boston: Pearson Allyn & Bacon.
- Padgett, D. K. (1998). Does the glove really fit? Qualitative

- research and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43(4), 373-381.
- Schwab(1978). The Practical: translation into curriculum. In J. J. Schwab, I. Westbury and N. J. Wikof(eds), *Science, Curriculum, and Liberal Education: Selected Essays*. Chicago, IL: Univerity of Chicago Press.
- Shulman, L.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3.
- Snyder, J., Bolin, F., & Zumwalt, K. (1992).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Jackson, P. W.(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NY: Macmillan.
- Tracy, S. J. (2010).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for excellent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6(10), 837-851.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An Exploration of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expertise
of High school PE teacher

Yujeong L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nternalization OF high school PE teachers'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PE classe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curriculum implementation types,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expertise.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for this are: First, what is high school PE teachers'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state of implementation expertise? Second,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high school PE teachers'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Third, what are the high school PE teachers'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types?

This study utilized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d was conducted over a total of 17 months from July 2021 to November 2022.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selected as 12 incumbent high school PE teachers in consideration of the diversity of experiences related to the curriculum.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nd on-site docume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uggested by Wolcott(1994).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research, the triangular verification method, review among members, and consultation among peers were used,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compliance with research ethics.

The results of the study through the abo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high school PE teachers implemented the PE curriculum according to the stages of understanding, planning, implementing. And the high school PE teachers' curriculum implementation expertise at each stag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nine aspects. First of all, in the understanding stage, the expertise of knowing the cont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understanding the teacher's role in the curriculum, and critically understanding the curriculum was revealed. Next, in the planning stage, the expertise of communicating with surroundings(fellow teachers, students, etc.), utilizing the materials of the national curriculum(achievement standards, subject goals, etc.), and developing their own curriculum was revealed. Lastly, in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expertise of connecting curriculum and classes, making efforts to create good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looking back on one's own classes was reveale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four dimensions of individual, relationship, environment, and subject as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PE curriculum by high school PE teachers. On the individual level, experience factors related to

curriculum, such as textbook writing,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 curriculum-related training, and teachers' educational philosophy factors, such as cultivating whole sports people, and student-centered classes, were included. The relational dimension included factors of positive/negative relationships with fellow teachers and factors of participation in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within and between subjects. The environmental dimension include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ports facilities, teaching aids, and the number of hours of PE classes, as well a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tudent tendencies and COVID-19. Curriculum factors included PE curriculum factors, such as the effect of curriculum revision and reflection of field voices, and good or bad factors of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such as the obligation for implementing the curriculum and the stepping stones of lifelong physical education.

Third,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the PE curriculu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high school PE teachers' physical education implementation typ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Curriculum trusting type', 'Curriculum selecting type', and 'Curriculum apathy type'. First, the 'Curriculum trusting type' recognized that the curriculum was the bible of class as a national agreement and the cornerstone of the future learning. Second, the 'Curriculum selecting type' recognizes that although the PE curriculum is a large frame of class, the teacher-level curriculum is more important, and this type of teachers select and utilize the necessary parts of the PE curriculum. Lastly, the 'Curriculum apathy type' recognized that the PE curriculum is a nominal thing and a separated theory from the field. And this type of teachers had classes free from the curriculum, and sometimes used the curriculum to look back their classes.

As a discussion that integrate these results, first,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xpertise of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as a overall process that includes learning, practicing, developing, and reflecting on the curriculum. Second, according to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at not only teachers but also the environment, learners, subjects and curriculum from a wide perspective in order to plan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Thir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perspective proposed by Snyder & Zumwalt(1992) and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type in this study, and found that the 'Curriculum apathy type' is revealing the negative side of the duality of the curriculum enactment perspective.

Lastly, as for the suggestions for field practice,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supports at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age and the in-service teacher education stage to develop expertis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and class quality of high school PE teach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gap with the field by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voice of the fiel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urriculum. Third,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accept the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s presented by the PE curriculum in high school PE classes, and to shed light on the fidelity perspective of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effects of high school PE teachers' curriculum execution on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research subjects, compare the meaning of high school PE curriculum implementation wi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s, and present specific measures.

Keywords : curriculum implementation expertise, curriculum reconstructing, high school PE, PE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20-29882